



사회통계조사 결과 분석

1. 주거와 생활부문

2. 보육과 교육부문

3. 건강과 보건부문

4. 문화와 여가부문

5. 사회와 복지부문

6. 고용과 취업부문

7. 시정부문

8. 소득과 지출부문

1 주거와 생활부문

가. 거주지 선택 이유

군산시를 거주지로 선택한 이유는 『옛날부터 살아서』 70.2%, 『사업상, 직장(학교)』 23.4%, 『가족 친인척과 가까이 살기위해』 4.9%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 선택이유는 60세 이상 응답자의 84.6%가 『옛날부터 살아서』를 응답함
- 소득수준별로 보면 『옛날부터 살아서』의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업상, 직장(학교)』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거주지 선택 이유]



[표 26] 거주지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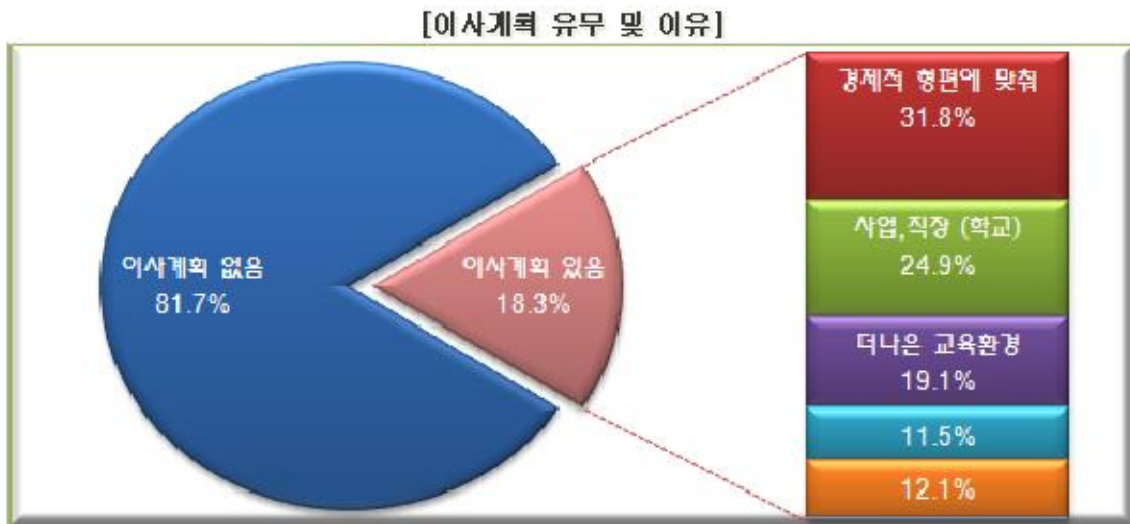
(단위 : %)

	한계	옛날부터 살아서	사업상, 직장(학교)	경제적 가치기대	자연환경	가족친인척과 가까이 살기 위해	자녀 육아 양육	기타
계	100.0	70.2	23.4	0.2	0.7	4.9	0.5	0.1
남	100.0	67.3	26.9	0.1	0.7	4.6	0.4	0.0
여	100.0	79.7	12.4	0.4	0.4	5.8	0.9	0.4
15-19세	0.0	0.0	0.0	0.0	0.0	0.0	0.0	0.0
20-29세	100.0	58.3	36.1	0.0	0.0	5.6	0.0	0.0
30-39세	100.0	50.3	41.4	0.0	0.0	7.7	0.6	0.0
40-49세	100.0	64.6	29.1	0.0	0.5	4.0	1.4	0.4
50-59세	100.0	68.8	26.1	0.6	1.7	2.8	0.0	0.0
60세 이상	100.0	84.6	9.1	0.3	0.6	5.1	0.3	0.0
100만원 미만	100.0	80.3	10.3	0.3	0.6	7.6	0.6	0.3
100이상-200미만	100.0	73.4	22.3	0.0	0.4	3.0	0.9	0.0
200이상-300미만	100.0	65.2	29.8	0.5	1.0	3.5	0.0	0.0
300이상-400미만	100.0	61.8	34.6	0.0	0.0	3.6	0.0	0.0
400이상-600미만	100.0	46.4	46.4	0.0	0.0	5.4	1.8	0.0
600만원 이상	100.0	27.8	66.7	0.0	5.5	0.0	0.0	0.0

나. 이사계획 유무 및 이유

군산시 거주가구의 18.3%가 이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사계획 이유는 「경제적 형편에 맞춰」 31.8%, 「사업·직장(학교)」 24.9%, 「더 나은 교육환경」 19.1% 순으로 나타남

- 가구주의 이사계획 여부는 남자 19.8%, 여자 13.7%가 이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이사계획 여부는 30대 36.3%, 20대 33.3%, 40대 23.8% 순으로 나타남
- 이사계획 사유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사업,직장(학교)』,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경제적 형편에 맞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7] 이사계획 유무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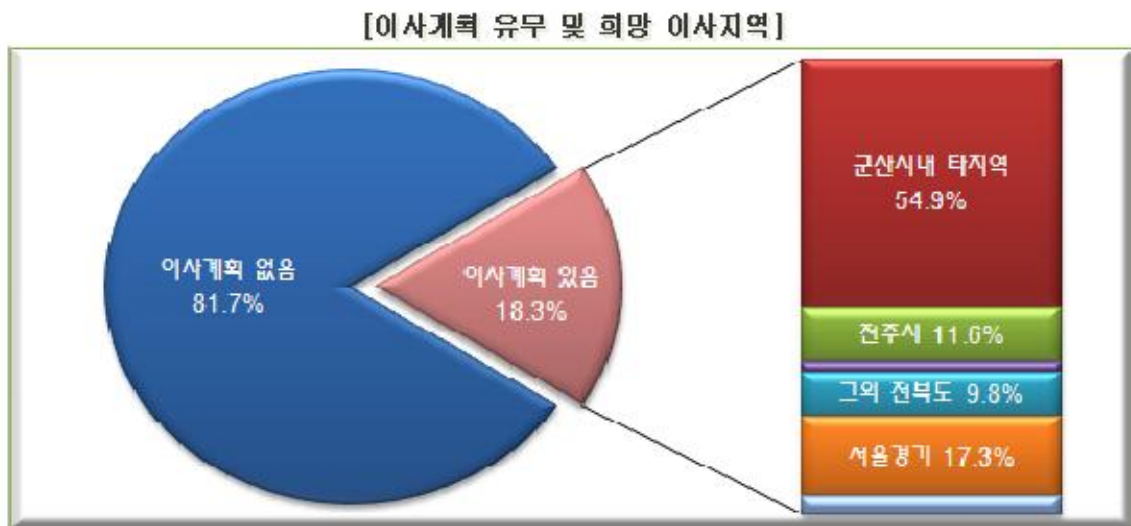
(단위 : %)

	한계	이사계획 없음	이사계획 있음	경제적 형편에 맞춰	사업, 직장 (학교)	더 나은 교육환경	더 나은 자연환경	생황문화 시설부족	기타
계	100.0	81.7	18.3	31.8	24.9	19.1	11.5	12.1	0.6
남	100.0	80.2	19.8	31.0	23.2	19.7	11.3	14.1	0.7
여	100.0	86.3	13.7	35.5	32.3	16.1	12.9	3.2	0.0
15-19 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29 세	100.0	66.7	33.3	58.3	16.7	25.0	0.0	0.0	0.0
30-39 세	100.0	63.7	36.3	21.0	43.9	21.0	5.3	8.8	0.0
40-49 세	100.0	76.2	23.8	26.4	13.2	22.6	18.9	18.9	0.0
50-59 세	100.0	85.8	14.2	40.0	24.0	8.0	12.0	16.0	0.0
60 세 이상	100.0	92.6	7.4	46.2	11.5	15.4	15.4	7.7	3.8
초졸 이하	100.0	92.1	7.9	55.0	0.0	15.0	20.0	5.0	5.0
중졸	100.0	83.5	16.6	47.6	23.8	14.3	9.5	4.7	0.0
고졸	100.0	81.9	18.1	35.2	25.9	14.8	7.4	16.7	0.0
대졸 이상	100.0	70.7	29.3	19.2	30.8	24.4	12.8	12.8	0.0

다. 이사계획 유무 및 희망 이사지역

희망 이사지역은 『군산시내 타지역』 54.9%, 『서울·경기』 17.3%, 『전주시』 11.6% 순으로 나타남

- 성별 희망 이사지역은 『군산시내 타 지역』 이 남자 59.1%, 여자 35.5%로 나타남
- 연령대별 희망 이사지역은 『군산시내 타 지역』 이 60세 이상 69.2%, 20대 66.7%, 30대 54.4% 순으로 나타남



[표 28] 이사계획 유무 및 희망 이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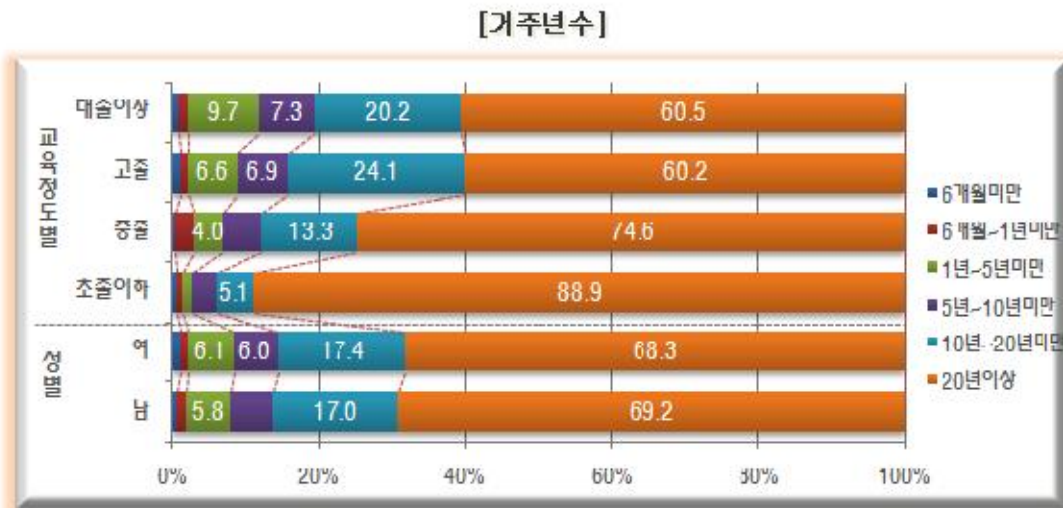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이사계획 없음	이사계획 있음	군산시내 타지역	전주시	익산시	그 외 전북도	서울경기	기타
계	100.0	81.7	18.3	54.9	11.6	2.3	9.8	17.3	4.1
남	100.0	80.2	19.8	59.1	10.6	2.1	9.2	16.2	2.8
여	100.0	86.3	13.7	35.5	16.1	3.2	12.9	22.6	9.7
15-19 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29 세	100.0	66.7	33.3	66.7	8.3	0.0	8.3	16.7	0.0
30-39 세	100.0	63.7	36.3	54.4	17.5	1.8	10.5	10.5	5.3
40-49 세	100.0	76.2	23.8	49.0	13.2	3.8	13.2	17.0	3.8
50-59 세	100.0	85.8	14.2	48.0	4.0	4.0	12.0	24.0	8.0
60세 이상	100.0	92.6	7.4	69.2	3.9	0.0	0.0	26.9	0.0
100만원 미만	100.0	85.7	14.3	51.1	6.4	4.26	10.6	23.4	4.2
100이상-200미만	100.0	85.4	14.6	55.9	20.6	2.9	5.9	8.8	5.9
200이상-300미만	100.0	80.8	19.2	57.9	10.6	2.6	10.5	15.8	2.6
300이상-400미만	100.0	74.6	25.5	64.3	7.1	0.0	10.7	14.3	3.6
400이상-600미만	100.0	62.5	37.5	52.4	9.5	0.0	9.5	23.8	4.8
600만원 이상	100.0	72.2	27.8	20.0	40.0	0.0	20.0	20.0	0.0

라. 거주년수

군산시 거주년수는 『20년 이상』 68.7%, 『10-20년 미만』 17.2%, 『1-5년 미만』 및 『5-10년 미만』 이 각각 6.0% 순으로 나타남

- 군산시에 『2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는 남자 69.2%, 여자 68.3%로 나타남
- 교육정도별 거주년수는 군산시에 『2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는 초졸이하 89.0%, 중졸 74.6%, 대졸이상 60.5%, 고졸 60.2% 순으로 나타남



[표 29] 거주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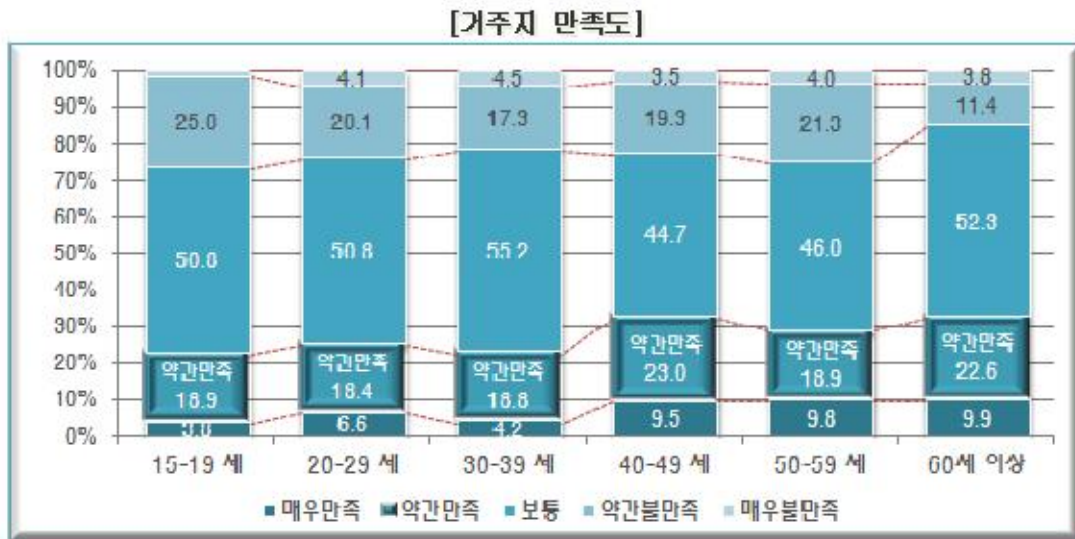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6개월미만	6개월-1년미만	1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이상
계	100.0	0.8	1.3	6.0	6.0	17.2	68.7
남	100.0	0.6	1.4	5.9	5.9	17.0	69.2
여	100.0	1.0	1.2	6.1	6.0	17.4	68.3
15-19세	100.0	0.8	0.0	3.8	10.6	84.8	0.0
20-29세	100.0	0.8	2.9	10.3	8.2	10.2	67.6
30-39세	100.0	1.5	1.5	11.1	11.4	17.8	56.7
40-49세	100.0	0.5	0.7	6.8	5.0	25.0	62.0
50-59세	100.0	0.9	1.2	4.0	4.0	10.0	79.9
60세 이상	100.0	0.5	1.2	1.7	2.1	2.9	91.6
초졸이하	100.0	0.6	0.8	1.2	3.3	5.1	89.0
중졸	100.0	0.4	2.4	4.0	5.3	13.3	74.6
고졸	100.0	1.1	1.1	6.6	6.9	24.1	60.2
대졸이상	100.0	0.8	1.5	9.7	7.3	20.2	60.5

마. 거주지 만족도

군산시 거주지 만족도는 『보통』 50.2%, 『약간만족』 20.6%, 『약간불만족』 17.5%, 『매우만족』 7.9% 순으로 보통이상의 만족도가 78.7%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15-19세의 경우 『약간불만족』이 25.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매우만족』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30] 거주지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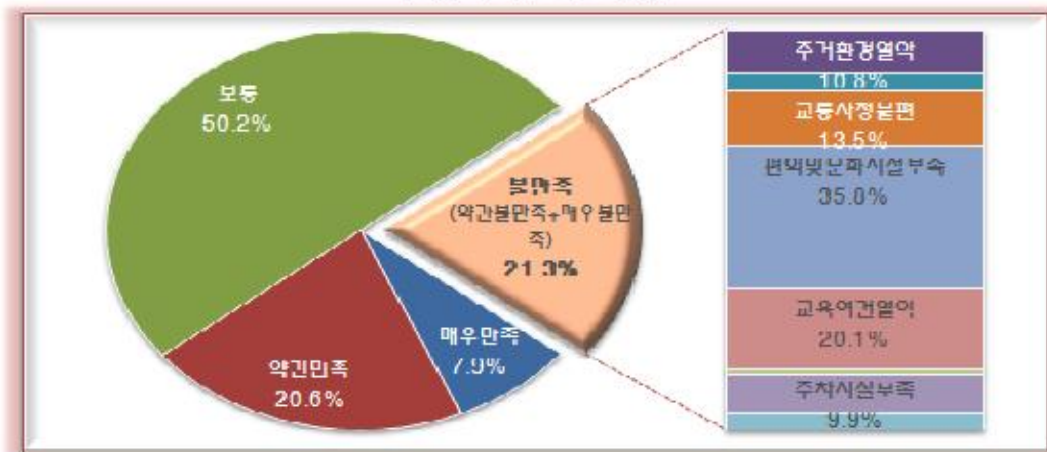
	합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100.0	7.9	20.6	50.2	17.5	3.8
남	100.0	8.0	20.9	50.7	16.8	3.6
여	100.0	7.8	20.4	49.7	18.1	4.0
15-19 세	100.0	3.8	18.9	50.8	25.0	1.5
20-29 세	100.0	6.6	18.4	50.8	20.1	4.1
30-39 세	100.0	4.2	18.8	55.2	17.3	4.5
40-49 세	100.0	9.5	23.0	44.7	19.3	3.5
50-59 세	100.0	9.8	18.9	46.0	21.3	4.0
60세 이상	100.0	9.9	22.6	52.3	11.4	3.8
초졸 이하	100.0	8.4	21.3	52.7	12.5	5.1
중졸	100.0	10.9	25.8	46.4	14.1	2.8
고졸	100.0	7.5	20.5	49.0	19.6	3.4
대졸 이상	100.0	6.9	18.3	51.1	20.2	3.5

바. 거주지 불만족 이유

거주지 불만족 이유는 『편의 및 문화시설 부족』 35.8%, 『교육여건 열악』 20.1%, 『교통사정불편』 13.5%, 『주거환경열악』 10.8%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거주지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15-19세가 『편의 및 문화시설 부족』 57.1%, 40대는 『교육여건열악』 33.0%, 60세 이상은 『교통사정불편』 2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소득수준이 300만원이상-600만원미만의 경우 『편의 및 문화시설 부족』 이 49.2%, 62.5%로 높게 나타남

[거주지 불만족 이유]



[표 3] 거주지 불만족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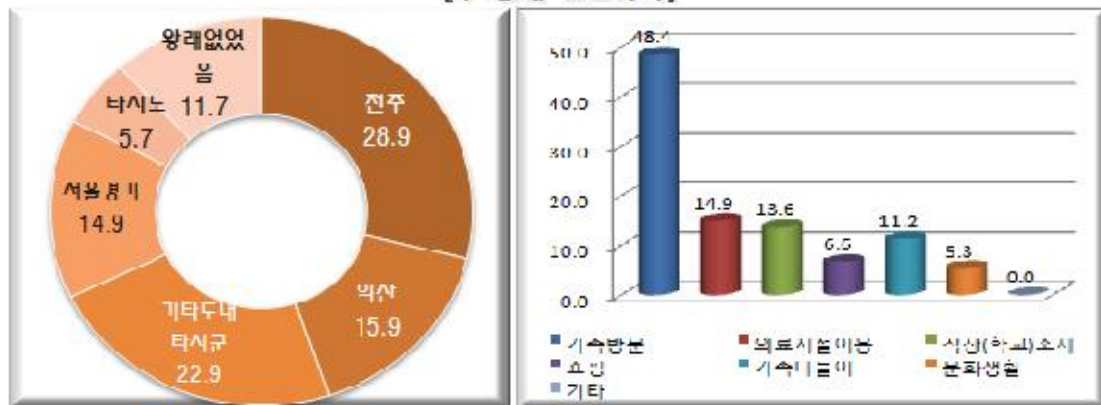
	합계	주거환경 열악	주거환경 부족	교통 사정 불편	편의및문화 시설부족	교육여건 열악	주거시설 부족	소득수준 고려사항	기타
계	100.0	10.8	4.5	13.5	35.8	20.1	1.3	9.9	4.5
남	100.0	11.2	3.9	12.1	33.5	25.2	1.5	7.3	5.3
여	100.0	10.5	5.0	14.7	37.8	15.6	1.3	12.2	2.9
15-19세	100.0	2.9	2.9	11.4	57.1	17.1	2.9	5.7	0.0
20-29세	100.0	11.9	3.4	11.9	45.8	20.3	0.0	5.1	1.7
30-39세	100.0	7.9	3.4	5.7	39.8	35.2	0.0	5.7	2.3
40-49세	100.0	14.3	5.5	9.9	27.5	33.0	1.1	4.4	4.4
50-59세	100.0	16.9	4.8	13.2	37.4	8.4	3.6	9.6	6.0
60세 이상	100.0	6.8	5.7	27.3	23.9	3.4	1.1	25.0	6.8
100만원 미만	100.0	8.4	8.4	22.4	32.7	5.6	1.9	12.1	8.4
100이상-200미만	100.0	13.6	2.5	12.7	25.4	17.8	1.7	21.2	5.1
200이상-300미만	100.0	13.9	4.3	11.3	34.8	29.6	0.9	3.5	1.7
300이상-400미만	100.0	6.6	3.3	3.3	49.2	32.8	1.6	3.3	0.0
400이상-600미만	100.0	3.1	3.1	12.5	62.5	15.6	0.0	0.0	3.1
600만원 이상	100.0	18.2	0.0	18.2	36.4	27.3	0.0	0.0	0.0

사. 주 왕래 인근지역

주왕래 인근지역은 『전주』 28.9%, 『기타도내 타시군』 22.9%, 『익산』 15.9%, 『서울·경기』 14.9% 순으로 나타남

- 왕래이유를 살펴보면 『가족방문』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시설이용』 14.9%, 『직장(학교) 소재』 13.6%, 『가족나들이』 11.2% 순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 주 왕래 인근지역은 100만원 미만 『기타도내 타시군』 26.0%, 『왕래 없었음』 22.5%, 『전주』 19.4%순으로 나타났으며, 600만원 이상 『전주』 36.4%, 『서울 경기』 22.7%, 『타시도』 20.4% 순으로 나타남

[주 왕래 인근지역]



[표 32] 주 왕래 인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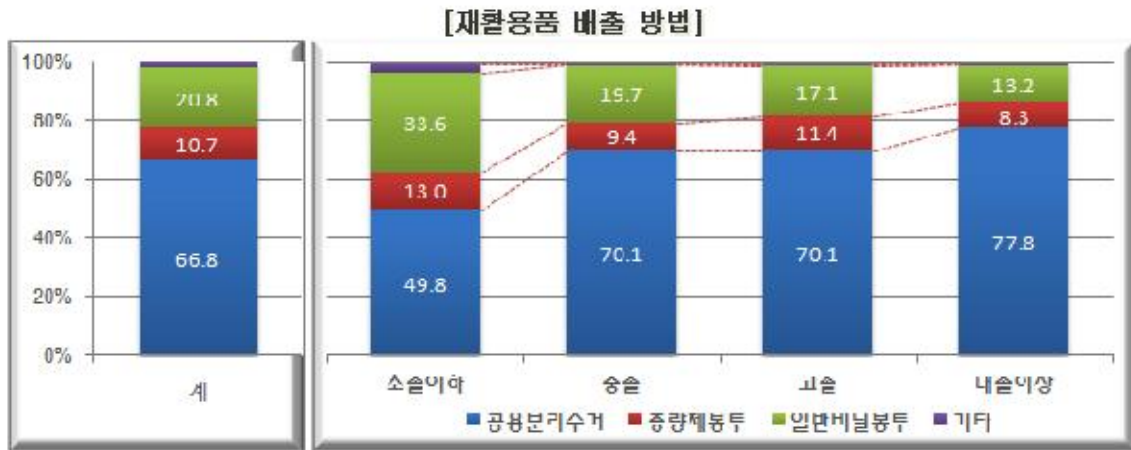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전주	익산	기타도내 타시군	서울경기	타시도	왕래 없었음
계	100.0	28.9	15.9	22.9	14.9	5.7	11.7
남	100.0	28.8	15.2	23.9	15.6	6.3	10.2
여	100.0	29.1	16.6	22.0	14.2	5.0	13.1
15-19 세	100.0	32.6	18.2	19.7	12.1	3.8	13.6
20-29 세	100.0	38.1	13.1	17.2	17.6	5.4	8.6
30-39 세	100.0	34.4	18.6	20.3	14.4	6.9	5.4
40-49 세	100.0	33.3	16.2	20.3	15.3	6.7	8.2
50-59 세	100.0	22.9	16.4	29.0	14.9	4.0	12.8
60세 이상	100.0	20.9	14.2	26.2	14.5	5.5	18.7
100만원 미만	100.0	19.4	13.8	26.0	14.9	3.4	22.5
100이상-200미만	100.0	25.9	18.7	25.1	13.2	4.9	12.2
200이상-300미만	100.0	33.5	16.3	23.6	12.3	7.9	6.4
300이상-400미만	100.0	39.3	13.8	14.8	21.7	4.5	5.9
400이상-600미만	100.0	38.3	17.7	20.6	14.2	7.1	2.1
600만원 이상	100.0	36.4	11.4	9.1	22.7	20.4	0.0

아. 재활용품 배출 방법

재활용품 배출 방법은 「공용분리수거」 66.8%, 「일반비닐봉투」 20.8%, 「종량제 봉투」 10.7% 순으로 나타남

- 재활용품 배출 방법은 60세 이상의 경우 『일반비닐봉투』가 31.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교육정도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용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며, 교육정도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재활용품 배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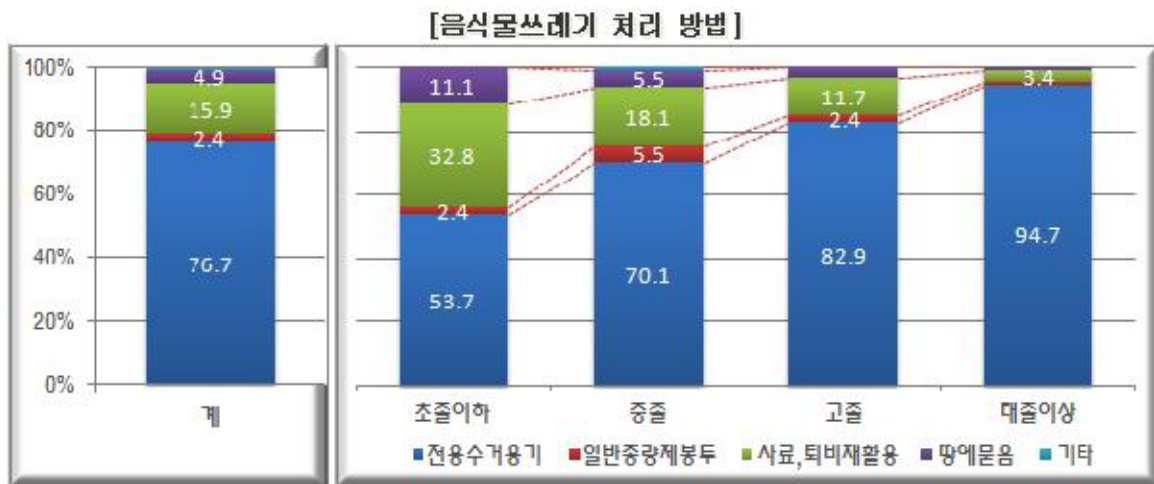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공용분리수거	종량제봉투	일반비닐봉투	기타
계	100.0	66.8	10.7	20.8	1.7
15-19세	0.0	0.0	0.0	0.0	0.0
20-29세	100.0	69.4	16.7	13.9	0.0
30-39세	100.0	79.6	6.4	13.4	0.6
40-49세	100.0	75.3	10.3	12.6	1.8
50-59세	100.0	72.2	7.9	18.8	1.1
60세 이상	100.0	52.8	13.6	31.0	2.6
초졸이하	100.0	49.8	13.0	33.6	3.6
중졸	100.0	70.1	9.4	19.7	0.8
고졸	100.0	70.1	11.4	17.1	1.4
대졸이상	100.0	77.8	8.3	13.2	0.7
100만원 미만	100.0	58.4	11.2	26.8	3.6
100이상-200미만	100.0	66.5	11.6	21.0	0.9
200이상-300미만	100.0	70.2	13.1	16.7	0.0
300이상-400미만	100.0	77.3	7.3	15.4	0.0
400이상-600미만	100.0	78.6	5.3	16.1	0.0
600만원 이상	100.0	88.9	0.0	0.0	11.1

자.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은 『전용수거용기』 76.7%,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15.9%, 『땅에 묻음』 4.9% 순으로 나타남

-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은 『전용수거용기』가 남자 78.8%, 여자 69.9%로 남자가 8.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전용수거용기』 활용이,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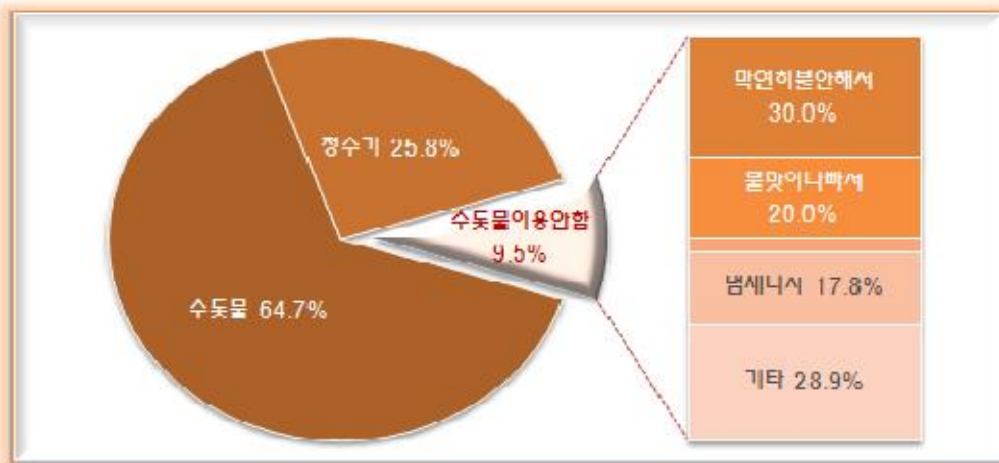
	합계	전용수거용기	일반종량제봉투	사료·퇴비재활용	땅에묻음	기타
계	100.0	76.7	2.4	15.9	4.9	0.1
남	100.0	78.8	2.0	14.8	4.3	0.1
여	100.0	69.9	4.0	19.5	6.6	0.0
초졸이하	100.0	53.7	2.4	32.8	11.1	0.0
중졸	100.0	70.1	5.5	18.1	5.5	0.8
고졸	100.0	82.9	2.4	11.7	3.0	0.0
대졸이상	100.0	94.7	1.1	3.4	0.8	0.0
100만원미만	100.0	62.6	2.5	25.5	9.4	0.0
100이상-200미만	100.0	80.3	1.3	15.0	3.0	0.4
200이상-300미만	100.0	83.8	5.1	7.6	3.5	0.0
300이상-400미만	100.0	85.5	1.8	11.8	0.9	0.0
400이상-600미만	100.0	98.2	0.0	1.8	0.0	0.0
600만원 이상	100.0	88.9	0.0	11.1	0.0	0.0

차. 식수이용 실태

식수이용실태는 『수돗물』 64.7%, 『정수기』 25.8%, 『수돗물 이용안함』 9.5% 순이며, 수돗물을 음용수로 마시지 않는 이유는 『막연히 불안해서』 30.0%, 『물맛이 나빠서』 20.0%, 『냄새나서』 17.8%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수돗물을 음용수로 마시지 않는 이유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막연히 불안해서』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식수로 수돗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20대로 72.2%로 나타났으며, 『정수기』 사용의 경우 40대가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식수이용 실태]



[표 35] 식수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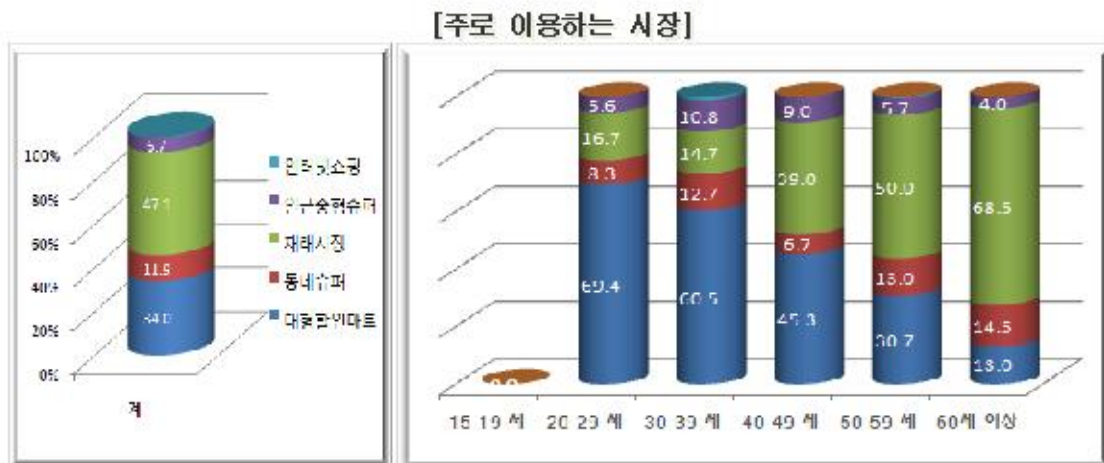
(단위 : %)

	연령	성별	수돗물 이용률		수돗물 이용안함			수돗물 마시지 않는 이유				
			수돗물	정수기	지하수·약수	파는물(정수)	기타	막연히 불안해서	물맛이 나빠서	이물질 나와서	냄새나서	기타
계			64.7	25.8	7.2	23	0.0	30.0	20.0	3.3	17.8	28.9
남			61.3	28.5	7.8	24	0.0	28.8	24.6	4.1	15.1	27.4
여			75.7	16.8	5.3	22	0.0	35.3	0.0	0.0	29.4	35.3
15-19	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29	세		72.2	19.5	0	8.3	0.0	66.7	33.3	0.0	0.0	0.0
30-39	세		59.9	32.5	2.5	5.1	0.0	41.7	25.0	8.3	16.7	8.3
40-49	세		55.6	39.0	2.7	2.7	0.0	41.7	8.3	0.0	33.3	16.7
50-59	세		64.8	23.3	10.2	1.7	0.0	38.1	19.1	9.5	14.3	19.0
60세 이상	이		71.9	16.2	11.3	0.6	0.0	16.7	21.4	0.0	16.7	45.2
초졸 이하	이		76.7	9.9	12.6	0.8	0.0	14.7	14.7	0.0	23.5	47.1
중졸	이		69.3	24.4	5.5	0.8	0.0	37.5	0.0	0.0	25.0	37.5
고졸	이		65.1	26.8	6.4	1.7	0.0	25.0	25.0	8.3	16.7	25.0
대졸 이상	이		50.7	40.2	3.8	5.2	0.0	54.2	29.2	4.2	8.3	4.2

카. 주로 이용하는 시장

군산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은 『재래시장』 47.1%, 『대형할인마트』 34.0%, 『동네슈퍼』 11.9%, 『인근 중형슈퍼』 6.7% 순으로 나타남

- 주로 이용하는 시장은 20-40대는 『대형할인마트』가 각각 69.4%, 60.5%,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재래시장』이 50.0%,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형할인마트』를 주로 이용하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임



[표 36] 주로 이용하는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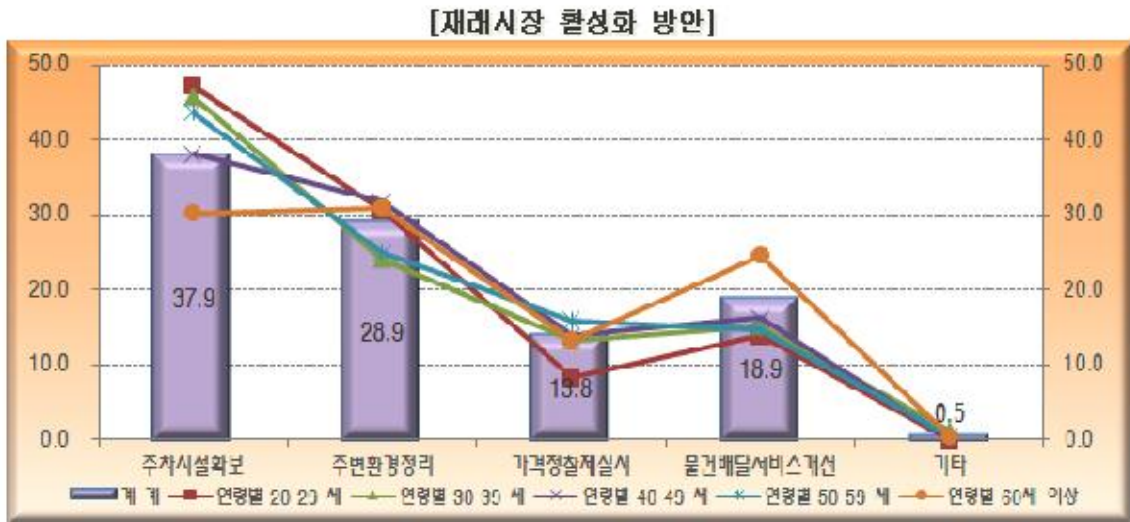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대형할인마트	동네슈퍼	재래시장	인근중형슈퍼	인터넷쇼핑	기타
계	100.0	34.0	11.9	47.1	6.7	3.7	0.0
남	100.0	38.0	10.7	43.7	7.3	0.3	0.0
여	100.0	21.2	15.5	58.0	4.9	0.4	0.0
15-19 세	0.0	0.0	0.0	0.0	0.0	0.0	0.0
20-29 세	100.0	69.4	8.3	16.7	5.6	0.0	0.0
30-39 세	100.0	60.5	12.7	14.7	10.8	1.3	0.0
40-49 세	100.0	45.3	6.7	39.0	9.0	0.0	0.0
50-59 세	100.0	30.7	13.0	50.0	5.7	0.6	0.0
60세 이상	100.0	13.0	14.5	68.5	4.0	0.0	0.0
100만원 미만	100.0	15.2	16.7	64.1	3.7	0.3	0.0
100이상-200미만	100.0	33.5	10.3	48.9	7.3	0.0	0.0
200이상-300미만	100.0	46.0	10.1	33.3	10.1	0.5	0.0
300이상-400미만	100.0	50.9	8.2	31.8	9.1	0.0	0.0
400이상-600미만	100.0	62.5	7.1	25.0	3.6	1.8	0.0
600만원 이상	100.0	61.1	0.0	27.8	11.1	0.0	0.0

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주차시설확보』 37.9%, 『주변환경정리』 28.9%, 『물건배달서비스 개선』 18.9%, 『가격정찰제 실시』 13.8% 순으로 나타남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남자가 『주차시설 확보』 39.7%, 『주변 환경정리』 28.0%, 『물건배달서비스 개선』 17.4%, 여자가 『주차시설확보』 32.3%, 『주변 환경정리』 31.9%, 『물건배달서비스 개선』 23.5%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차시설확보』 를,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주변환경정리』 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7]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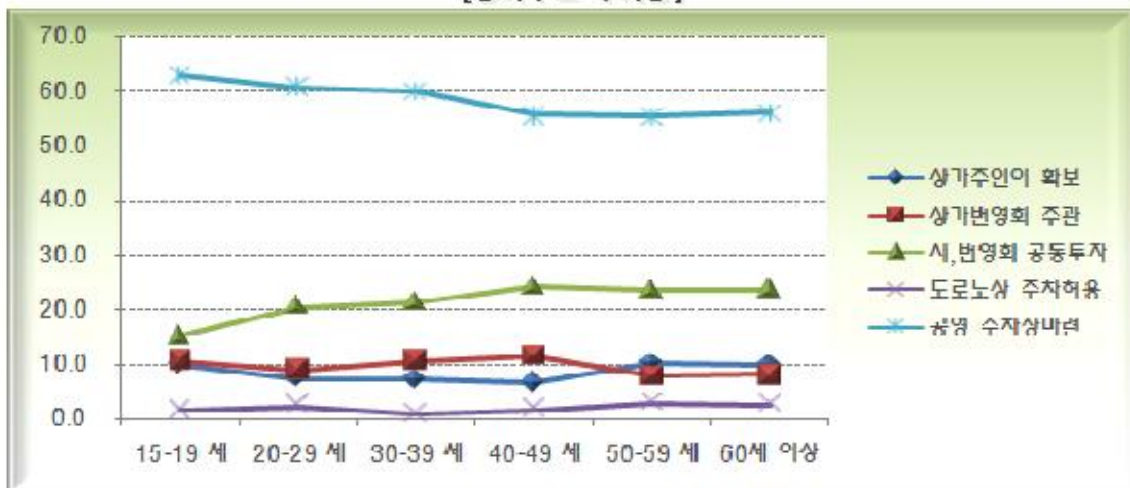
	한계	주차시설확보	주변환경정리	가격정찰제 실시	물건배달 서비스 개선	기타
계	100.0	37.9	28.9	13.8	18.9	0.5
남	100.0	39.7	28.0	14.3	17.4	0.6
여	100.0	32.3	31.9	11.9	23.5	0.4
15-19 세	0.0	0.0	0.0	0.0	0.0	0.0
20-29 세	100.0	47.2	30.6	8.3	13.9	0.0
30-39 세	100.0	45.8	24.2	13.4	15.3	1.3
40-49 세	100.0	38.1	31.8	13.9	16.2	0.0
50-59 세	100.0	43.7	25.0	15.9	14.8	0.6
60 세 이상	100.0	30.4	31.0	13.3	24.7	0.6
초졸 이하	100.0	30.0	32.4	12.3	24.9	0.4
중졸	100.0	31.5	32.3	18.1	18.1	0.0
고졸	100.0	40.9	28.2	12.4	17.5	1.0
대졸 이상	100.0	45.1	24.8	14.7	15.0	0.4

파. 상가주변 주차장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상가주변 주차장 형태로는 「공영 주차장 마련」 57.6%, 「시와 상가번영회 공동투자」 22.4%, 「상가번영회 주관」 9.5%, 「상가주인이 확보」 8.4%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공영주차장 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와 상가번영회 공동투자』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상가주인이 확보』를 바람직한 상가주변 주차장 형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상가주변 주차장]



[표 38] 상가주변 주차장

(단위 : %)

	연령	합계	상가주인이 확보	상가번영회 주관	시, 번영회 공동투자	도로노상 주차허용	공영 주차장 마련
계		1000	8.4	9.5	22.4	2.1	57.6
남		1000	9.0	8.7	23.2	2.4	56.7
여		1000	7.9	10.2	21.6	1.9	58.4
15-19 세		1000	9.8	10.6	15.2	1.5	62.9
20-29 세		1000	7.4	9.0	20.5	2.4	60.7
30-39 세		1000	7.2	10.6	21.3	1.0	59.9
40-49 세		1000	6.7	11.5	24.2	1.8	55.8
50-59 세		1000	10.1	7.9	23.5	3.0	55.5
60세 이상		1000	9.7	8.1	23.6	2.6	56.0
초졸 이하		1000	12.1	8.4	21.3	2.1	56.1
중졸		1000	8.5	10.1	25.8	3.2	52.4
고졸		1000	8.0	9.4	21.7	2.0	58.9
대졸 이상		1000	6.1	10.2	22.6	1.9	59.2

하. 이동식 단속카메라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인지』 70.8%, 『미인지』 29.2%로 나타났으며,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견해로는 『불법주정차 근절 효과』 45.8%, 『별효과 없을듯』 26.2%, 『시민의식개선이 우선』 21.5% 순으로 나타남

- 주정차 단속을 가장 많이 『인지』 하고 있는 연령대는 30대 86.5%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인지』 하고 있는 연령대는 60세 이상 47.7%로 나타남
-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견해는 모든 연령대에서 『불법주정차 근절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시민의식 개선이 우선』 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동식 단속카메라]



[표 39] 이동식 단속카메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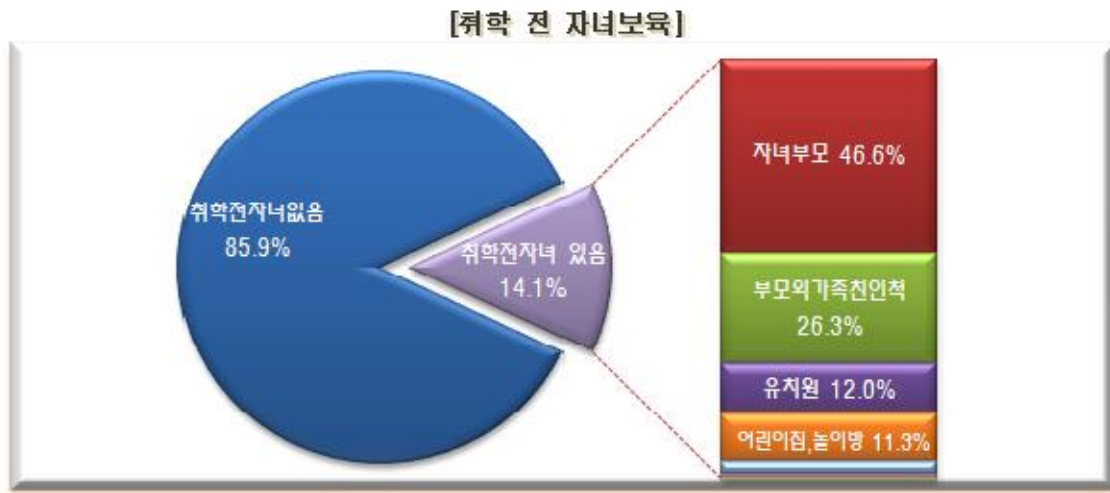
	한계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견해						
		주정차단속 인지	주정차단속 미인지	불법주정차 근절효과	별효과 없을듯	아직은 시기상조	시민의식 개선이 우선	기타
계	100.0	70.8	29.2	45.8	26.2	6.5	21.5	0.0
남	100.0	79.1	20.9	43.7	27.1	6.3	22.9	0.0
여	100.0	63.1	36.9	47.8	25.3	6.7	20.2	0.0
15-19 세	100.0	51.5	48.5	46.2	15.2	8.3	30.3	0.0
20-29 세	100.0	78.3	21.7	43.4	26.6	2.9	27.1	0.0
30-39 세	100.0	85.9	14.1	35.4	30.4	9.9	24.3	0.0
40-49 세	100.0	86.5	13.5	39.2	30.2	5.8	24.8	0.0
50-59 세	100.0	76.2	23.8	49.1	24.1	5.8	21.0	0.0
60세 이상	100.0	47.7	52.3	56.7	23.8	6.2	13.3	0.0

2 보육과 교육부문

가. 취학 전 자녀보육

취학 전 자녀에 대한 보육상태를 살펴보면 『자녀부모』 46.6%로 가장 많으며, 『부모외 가족 친인척』 26.3%, 『유치원』 12.0%,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11.3% 순으로 나타남

- 가구 내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가구』 14.1%, 『취학 전 자녀가 없는 가구』 85.9%로 나타남
-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에는 『자녀부모』, 여자인 경우에는 『부모 외 가족 친인척』 이 49.2%, 45.4%로 높게 나타남
- 교육정도별로 보면 모든 부문에서 전체의 비율과 유사한 순으로 나타났으나, 『중졸』의 경우에는 『부모 외 가족 친인척』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0] 취학 전 자녀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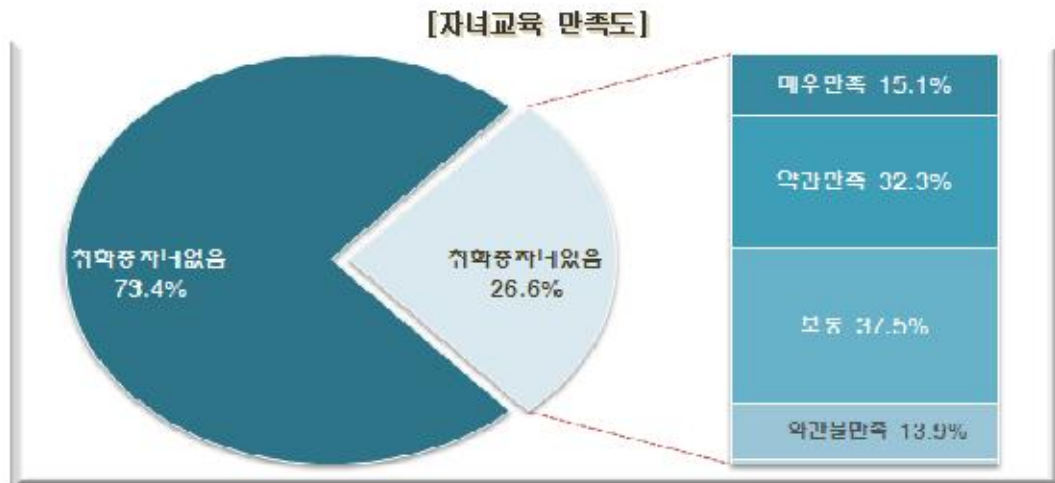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취학전 자녀없음	취학전 자녀있음	자녀 보육							
				자녀부모	부모외 가족 친인척	유치원	가사도우미 이웃사람	보육 시설	학원	흔자, 아동끼리	기타
계	1000	85.9	14.1	46.6	26.3	12.0	0.0	11.3	3.0	0.8	0.0
남	1000	83.0	17.0	49.2	24.6	12.3	0.0	11.5	2.4	0.0	0.0
여	1000	95.1	4.9	18.2	45.4	9.1	0.0	9.1	9.1	9.1	0.0
초 졸 이 하	1000	96.1	3.9	30.0	30.0	20.0	0.0	0.0	10.0	10.0	0.0
중 졸	1000	93.7	6.3	12.5	75.0	0.0	0.0	12.5	0.0	0.0	0.0
고 졸	1000	85.9	14.1	52.4	19.1	14.3	0.0	7.1	7.1	0.0	0.0
대 졸 이 상	1000	72.6	27.4	49.3	24.7	10.9	0.0	15.1	0.0	0.0	0.0

나. 자녀교육 만족도

자녀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37.5%, 「약간만족」 32.3%, 「매우만족」 15.1%, 「약간불만족」 13.9% 순으로 나타남

- 자녀교육 만족도는 50대의 경우 75.0%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25.0%가 불만족(약간불만족+매우불만족) 한 것으로 나타남
-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인 경우 93.4%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6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33.3%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자녀교육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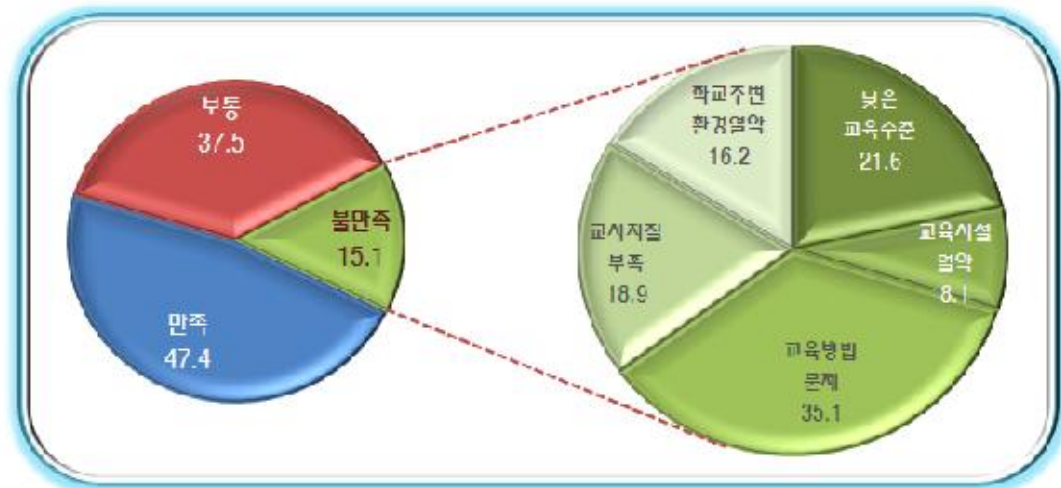
	합계	취학중 자녀없음	취학중 자녀있음	자녀교육 만족경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1000	734	266	15.1	32.3	37.5	13.9	1.2
15-19 세	00	00	00	00	00	00	00	00
20-29 세	1000	944	56	00	500	500	00	00
30-39 세	1000	573	427	13.4	388	328	15.0	00
40-49 세	1000	372	628	15.0	293	407	13.6	14
50-59 세	1000	909	91	12.5	313	313	18.8	63
60 세 이상	1000	926	74	23.1	308	385	7.6	00
100 만 원 미만	1000	909	91	20.0	367	367	6.6	00
100이상-200미만	1000	738	262	19.7	246	426	13.1	00
200이상-300미만	1000	616	384	11.8	342	329	18.5	26
300이상-400미만	1000	527	473	17.3	288	404	11.6	19
400이상-600미만	1000	750	250	3.8	462	423	7.7	00
600만원 이상	1000	833	167	16.7	333	167	33.3	00

다. 자녀교육 불만족 이유

자녀교육 불만족 이유로는 「교육방법 문제」 35.1%, 「낮은 교육수준」 21.6%, 「교사자질부족」 18.9%, 「학교 주변환경 열악」 16.2% 순으로 나타남

- 자녀교육 불만족 이유로는 초졸이하의 경우 『교육방법 문제』를, 중졸의 경우 『낮은 교육수준』을, 고졸의 경우 『교사자질 부족』을 가장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인 경우 『교육방법 문제』와 『학교주변 환경열악』이 각각 50.0%로 나타난 반면,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인 경우에는 『교육방법 문제』에 따른 불만족이 100.0%인 것으로 나타남

[자녀교육 불만족 이유]



[표 42] 자녀교육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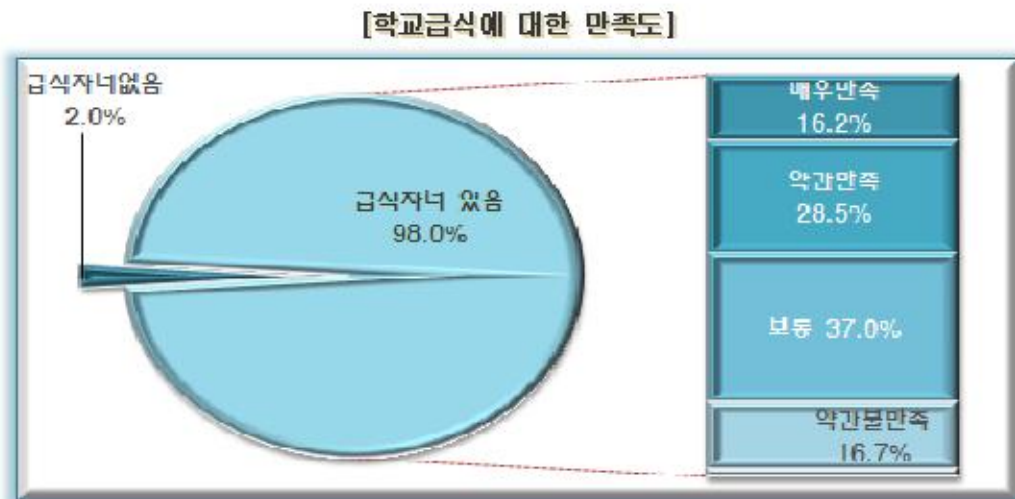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이유						
					낮은교육수준	교육시설 열악	교육방법 문제	교사자질 부족	부대비용 부담	학교주변 환경열악	기타
계	100.0	47.4	37.5	15.1	21.6	8.1	35.1	18.9	0.0	16.2	0.0
초졸이하	100.0	57.1	38.1	4.8	0.0	0.0	100.0	0.0	0.0	0.0	0.0
중졸	100.0	44.4	40.8	14.8	75.0	0.0	0.0	0.0	0.0	25.0	0.0
고졸	100.0	49.0	34.7	16.3	12.5	12.5	18.7	37.5	0.0	18.8	0.0
대졸이상	100.0	44.8	40.0	15.2	18.7	6.3	56.2	6.3	0.0	12.5	0.0
100만원 미만	100.0	56.7	36.7	6.6	0.0	0.0	50.0	0.0	0.0	50.0	0.0
100이상-200미만	100.0	44.3	42.6	13.1	37.5	12.5	12.5	25.0	0.0	12.5	0.0
200이상-300미만	100.0	46.0	32.9	21.1	12.4	6.3	43.7	18.8	0.0	18.8	0.0
300이상-400미만	100.0	46.1	40.4	13.4	28.6	14.3	28.6	28.6	0.0	0.0	0.0
400이상-600미만	100.0	50.0	42.3	7.7	0.0	0.0	100.0	0.0	0.0	0.0	0.0
600만원 이상	100.0	50.0	16.7	33.3	50.0	0.0	0.0	0.0	0.0	50.0	0.0

라.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가구 내 취학 자녀가 급식을 하고 있는 가구는 98.0%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녀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4.7%, 『보통』 37.0%, 『불만족』 18.3%로 나타남

-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가구주가 20대와 60대인 경우 보통이상의 만족도가 100%로 나타난 반면, 30-50대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인 경우 『만족』 (매우만족+약간만족)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6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는 33.4%가 『만족』 인 것으로 나타남



[표 43]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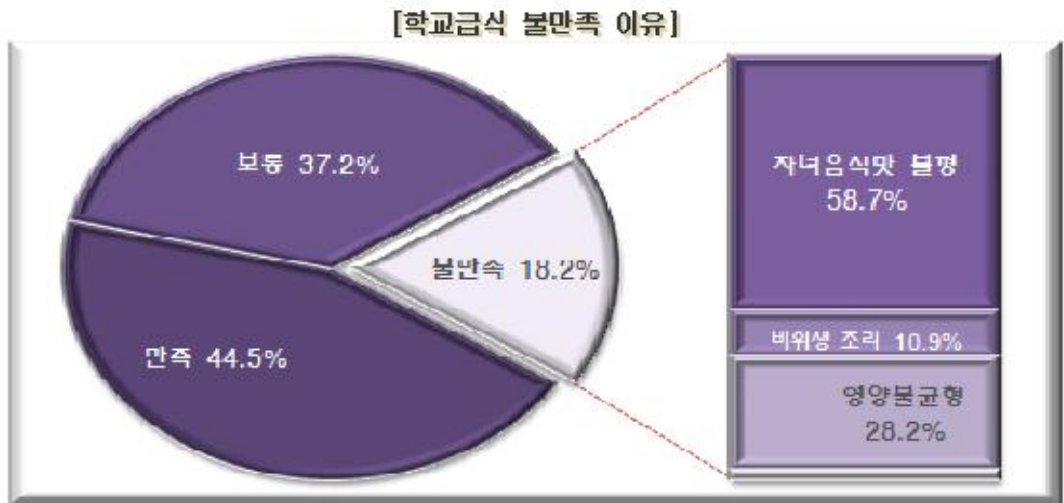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급식자녀 없음	급식자녀 있음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1000	20	98.0	16.2	28.5	37.0	16.7	1.6
15-19 세	00	0.0	0.0	0.0	0.0	0.0	0.0	0.0
20-29 세	1000	0.0	100.0	50.0	50.0	0.0	0.0	0.0
30-39 세	1000	1.5	98.5	15.1	28.8	37.9	15.1	3.1
40-49 세	1000	0.7	99.3	15.1	28.1	37.4	18.7	0.7
50-59 세	1000	6.3	93.7	26.7	20.0	13.3	33.3	6.7
60 세 이상	1000	7.7	92.3	16.7	33.3	50.0	0.0	0.0
100 만 원 미만	1000	6.9	93.1	28.6	46.4	21.4	3.6	0.0
100이상-200미만	1000	1.6	98.4	16.3	28.4	37.0	16.7	1.6
200이상-300미만	1000	0.0	100.0	14.5	23.7	40.8	19.7	1.3
300이상-400미만	1000	3.8	96.2	14.0	28.0	34.0	22.0	2.0
400이상-600미만	1000	0.0	100.0	15.4	38.5	34.6	7.7	3.8
600만원 이상	1000	0.0	100.0	16.7	16.7	33.3	33.3	0.0

마. 학교급식 불만족 이유

학교급식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자녀의 음식맛 불평』이 58.7%로 가장 높고, 『영양불균형』이 28.2%, 『비위생 조리』 10.9%, 『비싼 급식비』 2.2% 순으로 나타남

- 급식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보면 20대에서는 『비위생 조리』가 100.0%로 나타났으며, 30-50대에서는 『자녀 음식맛 불평』이 가장 높은 불만족 사유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 급식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모든 소득수준에서 『자녀음식맛 불평』이 가장 높은 불만족 사유로 나타남



[표 44] 학교급식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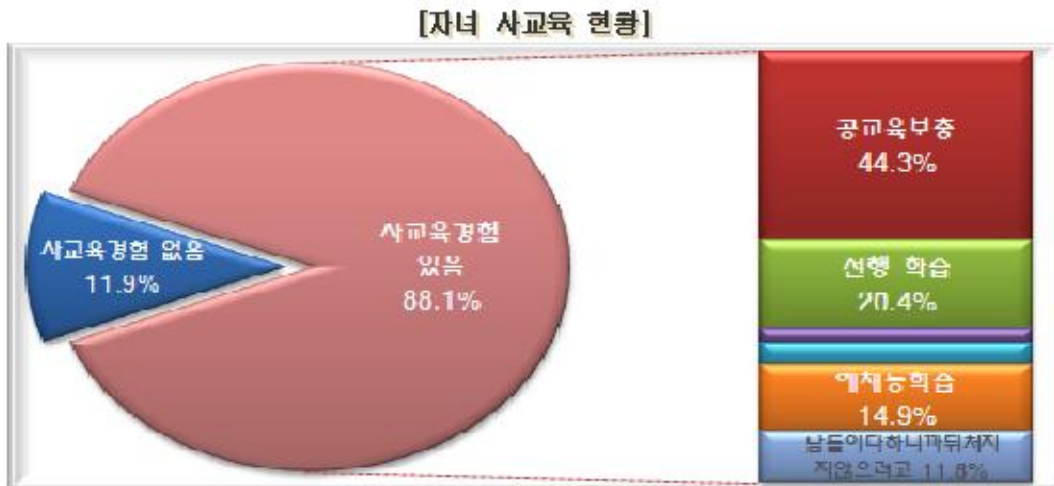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이유				
					자녀음식맛 불평	비위생 조리	영양불균형	비싼급식비	기타
계	100.0	44.5	37.2	18.2	58.7	10.9	28.2	2.2	0.0
남	100.0	42.7	38.5	18.7	55.3	10.5	31.6	2.6	0.0
여	100.0	53.8	30.8	15.4	85.7	14.3	0.0	0.0	0.0
초	100.0	66.7	33.3	0.0	0.0	0.0	0.0	0.0	0.0
중	100.0	44.4	40.7	14.8	50.0	0.0	50.0	0.0	0.0
고	100.0	51.0	25.0	24.0	65.2	4.3	30.4	0.0	0.0
대	100.0	34.9	48.1	17.0	52.6	21.1	21.1	5.3	0.0
100만원미만	100.0	75.0	21.4	3.6	50.0	50.0	0.0	0.0	0.0
100이상-200미만	100.0	38.3	43.3	18.3	72.7	0.0	18.2	9.1	0.0
200이상-300미만	100.0	38.1	40.8	21.1	56.2	12.5	31.2	0.0	0.0
300이상-400미만	100.0	41.2	35.3	23.5	50.0	16.7	33.3	0.0	0.0
400이상-600미만	100.0	53.8	34.6	11.5	66.7	0.0	33.3	0.0	0.0
600만원 이상	100.0	33.3	33.3	33.3	50.0	0.0	50.0	0.0	0.0

바. 자녀 사교육 현황

가구 내 취학자녀 중 사교육 경험이 있는 가구는 88.1%이며, 사교육을 시킨 이유는 『공교육보충』 44.3%, 『선행학습』 20.4%, 『예체능학습』 14.9%, 『남들이 다 하니깐』 11.8%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사교육 이유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들이 하니깐 뒤처지지 않으려고』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사교육 시킨 이유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수준에서 『공교육보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인 경우 『선행학습』과 『들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5] 자녀 사교육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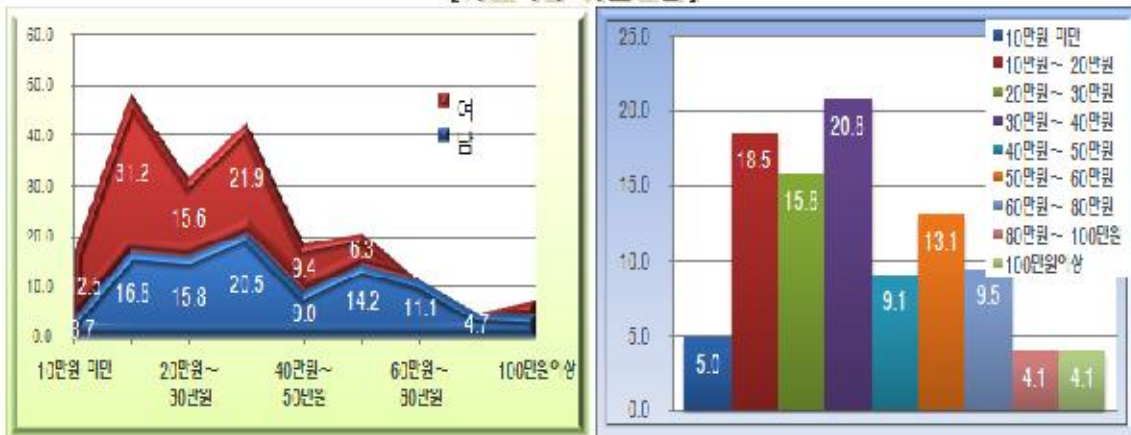
	합계	사교육 경험 없음	사교육 경험 있음	사교육 시킨 이유					
				공교육보충	선행 학습	들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녀 요구	예체능학습	남들이다하니깐
계	100.0	11.9	88.1	44.3	20.4	3.2	5.4	14.9	11.8
15-19 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29 세	100.0	5.0	95.0	0.0	100.0	0.0	0.0	0.0	0.0
30-39 세	100.0	7.4	92.6	41.3	22.2	3.2	1.6	22.2	9.5
40-49 세	100.0	10.0	90.0	45.2	19.8	4.0	8.0	11.9	11.1
50-59 세	100.0	12.5	87.5	50.0	21.4	0.0	7.1	7.2	14.3
60 세 이상	100.0	30.8	69.2	44.5	11.1	0.0	0.0	22.2	22.2
100 만 원 미만	100.0	46.7	53.3	50.0	12.5	0.0	0.0	18.7	18.8
100이상-200미만	100.0	19.7	80.3	40.8	14.3	2.0	6.1	14.3	22.5
200이상-300미만	100.0	2.6	97.4	44.6	23.0	2.7	5.4	17.6	6.7
300이상-400미만	100.0	1.9	98.1	47.1	15.7	3.9	7.8	15.7	9.8
400이상-600미만	100.0	0.0	100.0	46.1	34.6	0.0	3.9	7.7	7.7
600만원 이상	100.0	16.7	83.3	20.0	40.0	40.0	0.0	0.0	0.0

사. 사교육비 지출현황

사교육 경험이 있는 가구 중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보면 『30-40만원』 20.8%로 가장 높고, 『10-20만원』 18.5%, 『20-30만원』 15.8%, 『50-60만원』 13.1%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사교육비 지출은 20대에서는 모두 『30-4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0대에서는 『20-30만원』 지출이 2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인 경우 사교육비로 『2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7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인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지출이 80.0%로 높게 나타남

[사교육비 지출현황]



[표 46] 사교육비 지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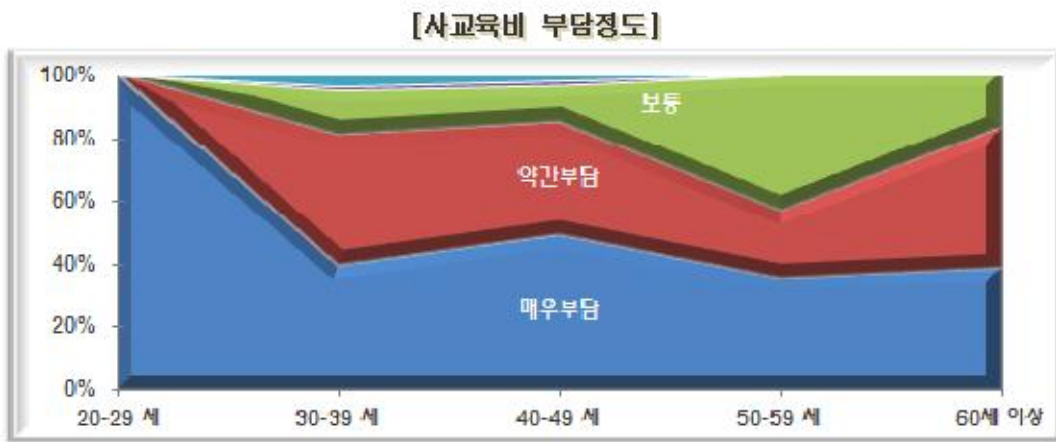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10만원 미만	10만원~20만원	20만원~30만원	30만원~40만원	40만원~50만원	50만원~60만원	60만원~80만원	80만원~100만원	100만원 이상
계	1000	5.0	18.5	15.8	20.8	9.1	13.1	9.5	4.1	4.1
15-19 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29 세	10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30-39 세	1000	4.8	16.1	24.2	16.1	14.5	17.8	4.9	1.6	0.0
40-49 세	1000	4.8	19.8	11.9	19.8	5.6	13.5	13.5	4.8	6.3
50-59 세	1000	0.0	14.3	21.4	35.7	7.2	7.2	7.1	0.0	7.1
60 세 이상	1000	11.1	22.2	11.1	27.8	16.7	0.0	0.0	11.1	0.0
100만원 미만	1000	31.2	43.8	18.8	0.0	6.2	0.0	0.0	0.0	0.0
100이상-200미만	1000	4.1	38.8	20.4	22.5	2.0	10.2	0.0	2.0	0.0
200이상-300미만	1000	4.1	9.5	18.9	27.0	10.8	16.2	10.8	0.0	2.7
300이상-400미만	1000	2.0	13.7	9.8	17.7	13.7	15.7	9.8	9.8	7.8
400이상-600미만	1000	0.0	3.9	11.6	19.2	11.5	11.5	26.9	7.7	7.7
600만원 이상	1000	0.0	0.0	0.0	20.0	0.0	20.0	20.0	20.0	20.0

아. 사교육비 부담정도

사교육비 부담정도는 『매우부담』 45.2%, 『약간부담』 36.7%, 『보통』 14.9%, 『부담 없음』 3.2%로 나타남

- 가구주가 20대인 경우 사교육비 부담정도는 『매우부담』 100.0%로 나타났으며, 50대는 사교육비가 『부담』(매우부담, 약간부담 합계)이 57.1%, 『보통』이 42.9%로 나타남
- 소득수준이 200만원대인 경우 91.9%가 『부담』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00만원대인 경우 82.4%, 100만원 미만인 경우 81.2%, 100만원대인 경우 75.5%, 400-500만원대인 경우 69.3%, 600만원 이상인 경우 60.0%인 것으로 나타남



[표 47] 사교육비 부담정도

(단위 : %)

	합계	사교육비 부담정도						
		사교육 경험 없음	사교육 경험 있음	매우부담	약간부담	보통	별로부담 없음	전혀부담 없음
계	100.0	11.9	88.1	45.2	36.7	14.9	1.4	1.8
15-19 세	100.0	0.0	0.0	0.0	0.0	0.0	0.0	0.0
20-29 세	100.0	50.0	50.0	100.0	0.0	0.0	0.0	0.0
30-39 세	100.0	7.4	92.6	40.3	40.3	14.5	1.6	3.3
40-49 세	100.0	10.0	90.0	49.2	35.7	11.9	1.6	1.6
50-59 세	100.0	12.5	87.5	35.7	21.4	42.9	0.0	0.0
60 세 이상	100.0	30.8	69.2	38.9	44.4	16.7	0.0	0.0
100 만 원 미만	100.0	46.7	53.3	37.5	43.7	12.5	0.0	6.3
100이상-200미만	100.0	19.7	80.3	34.7	40.8	22.5	0.0	2.0
200이상-300미만	100.0	2.6	98.1	58.1	33.8	6.8	1.3	0.0
300이상-400미만	100.0	1.9	98.1	51.0	31.4	13.7	2.0	2.0
400이상-600미만	100.0	0.0	100.0	30.8	38.5	23.1	3.8	3.8
600만원 이상	100.0	16.7	83.3	0.0	60.0	40.0	0.0	0.0

자. 외지 진학여부 및 이유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중 외지로 진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7.2%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다양한 학교형태를 찾아서』 33.3%, 『군산교육수준이 낮아서』 27.8%, 『우수학생이 많은 곳으로』 16.7%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외지 진학여부는 50대가 1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주의 교육정도가 고졸인 경우 『다양한 학교 형태를 찾아서』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우수학생이 많은 곳으로』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8] 외지 진학여부 및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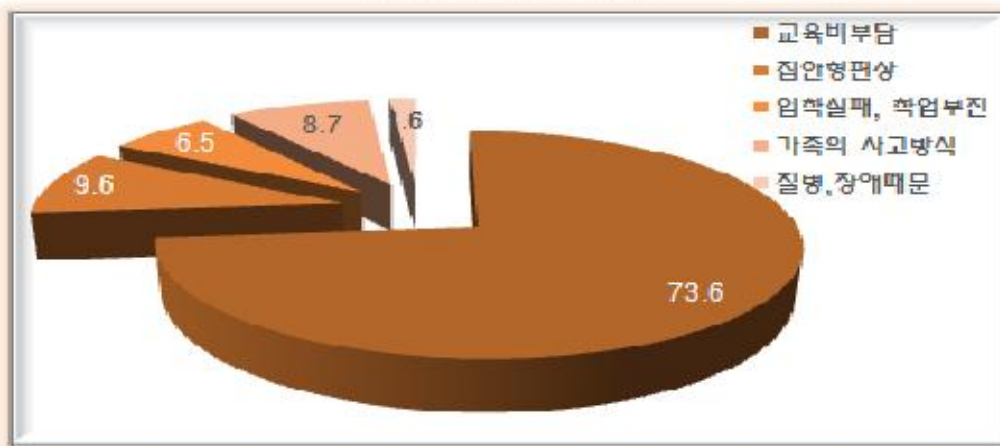
	합계	외지진학 자녀없음	외지진학 자녀있음	외지 진학 이유				기타
				군산교육 수준낮아서	다양한학교 형태찾아	우수학생 많은곳으로	학교육 시설때문	
계	100.0	92.8	7.2	27.8	33.3	16.7	22.2	0.0
남	100.0	92.9	7.1	26.3	26.3	26.3	21.1	0.0
여	100.0	92.3	7.7	20.0	40.0	20.0	20.0	0.0
15-19세	100.0	0.0	0.0	0.0	0.0	0.0	0.0	0.0
20-29세	100.0	100.0	0.0	0.0	0.0	0.0	0.0	0.0
30-39세	100.0	94.0	6.0	5.0	25.0	25.0	0.0	0.0
40-49세	100.0	91.4	8.5	16.7	33.3	16.7	33.3	0.0
50-59세	100.0	87.5	12.5	5.0	5.0	0.0	0.0	0.0
60세 이상	100.0	100.0	0.0	0.0	0.0	100.0	0.0	0.0
초졸 이하	100.0	100.0	0.0	0.0	0.0	0.0	0.0	0.0
중졸	100.0	92.6	7.4	0.0	5.0	0.0	5.0	0.0
고졸	100.0	89.8	10.2	3.0	4.0	1.0	2.0	0.0
대졸 이상	100.0	94.3	5.7	3.3	1.7	3.3	1.7	0.0

차. 교육기회의 충족도(중·고·대 학생 제외)

현재 중고대학생을 제외한 응답자에게 교육기회의 충족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충족도는 『충족』 35.4%, 『불충족』 64.6%로 나타났으며, 불충족한 교육을 받은 이유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73.6%, 『집안을 직접 돌봐야 해서(가장,주부)』 9.6%순으로 나타남

- 교육기회의 충족도를 보면 남자는 『충족』 41.6%, 『불충족』 58.4%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충족』 29.6%, 『불충족』 70.4%로 나타남
- 60세 이상인 경우 81.7%가 교육기회의 충족도에 대하여 『불충족』으로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인 경우 38.5%만이 『불충족』으로 응답해 가장 낮게 나타남

[교육기회 불충족 이유]



[표 49] 교육기회의 충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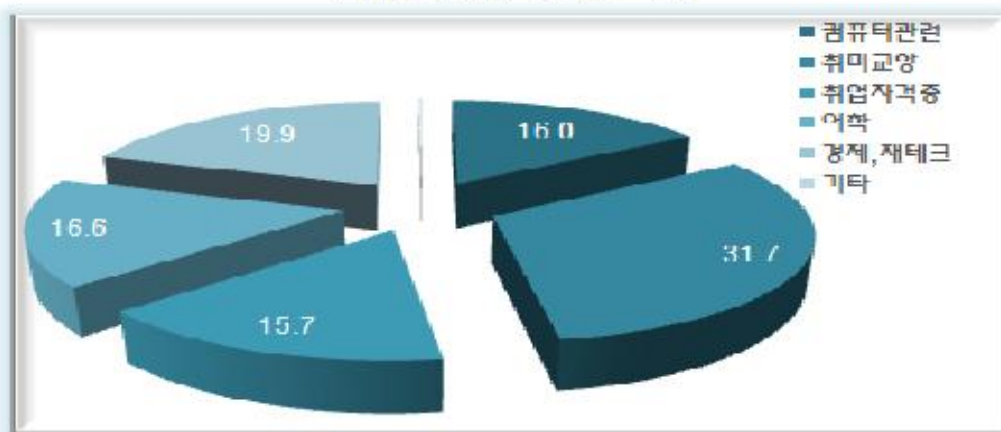
	합계	충족	불충족	불충족 이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교육비 부담)	집안 형편상	임학실패, 학업부진	가족의 사고방식	질병, 장애 때문
계	100.0	35.4	64.6	73.6	9.6	6.5	8.7	1.6
남	100.0	41.6	58.4	75.6	9.6	8.9	3.7	2.2
여	100.0	29.6	70.4	72.0	9.6	4.6	12.5	1.3
15-19세	100.0	47.6	52.4	54.5	0.0	36.4	0.0	9.1
20-29세	100.0	61.5	38.5	65.0	7.5	16.2	7.5	3.8
30-39세	100.0	48.6	51.4	73.0	5.3	16.9	3.4	1.4
40-49세	100.0	36.1	63.9	76.5	11.8	7.4	2.7	1.6
50-59세	100.0	30.9	69.1	74.8	11.9	4.0	8.0	1.3
60세 이상	100.0	18.3	81.7	73.6	9.7	0.2	15.0	1.5
초졸 이하	100.0	6.3	93.6	71.3	9.9	0.0	17.1	1.8
중졸	100.0	16.0	84.0	77.1	12.2	2.0	5.8	2.9
고졸	100.0	30.2	69.8	74.9	9.5	11.6	2.9	1.1
대졸 이상	100.0	75.0	25.0	71.4	5.0	17.9	4.3	1.4

카.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의 경우 『참여희망』이 63.5%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취미교양』 31.7%, 『경제, 재테크』 19.9% 순으로 나타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참여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연령대인 경우 『참여 희망하지 않음』의 비율이 68.9%로 높게 나타남
- 『취미교양』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또는 학력정도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취업자격증』은 연령정도가 낮을수록, 『경제, 재테크』의 경우에는 학력정도가 높을수록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표 50]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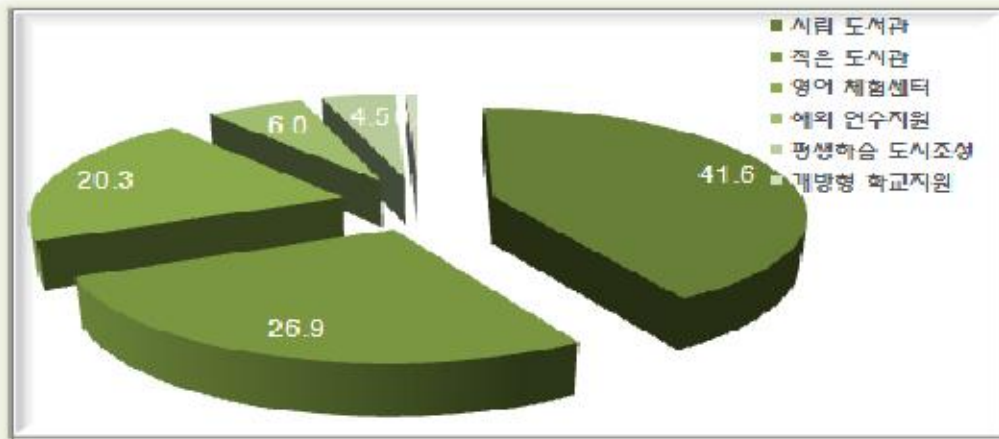
	합계	참여희망 하지않음	참여희망	희망 교육 프로그램					
				컴퓨터 관련	취미교양	취업 자격증	어학	경제, 재테크	기타
계	100.0	36.5	63.5	16.0	31.7	15.7	16.6	19.9	0.1
15-19세	100.0	22.7	77.3	27.5	10.8	23.5	35.3	2.9	0.0
20-29세	100.0	18.9	81.2	14.1	22.2	22.2	23.7	17.7	0.0
30-39세	100.0	14.6	85.4	13.3	23.2	20.0	15.7	27.5	0.3
40-49세	100.0	22.5	77.5	14.5	30.7	14.8	12.3	27.7	0.0
50-59세	100.0	41.8	58.2	16.7	47.1	7.3	10.0	18.9	0.0
60세 이상	100.0	68.9	31.1	18.9	55.6	6.1	14.4	5.0	0.0
초졸이하	100.0	71.9	28.1	11.7	52.6	12.4	17.5	5.8	0.0
중졸	100.0	41.1	58.9	19.9	45.9	12.3	8.9	13.0	0.0
고졸	100.0	26.9	73.0	20.1	29.0	18.0	12.9	19.9	0.2
대졸이상	100.0	18.0	82.0	12.0	24.9	15.2	22.3	25.6	0.0

타. 명품 교육도시 기반조성

명품 교육도시 기반조성 교육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있음」 42.0%, 「모름」 58.0%로 나타났으며, 명품교육도시 군산 건설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는 「시립도서관 건립」 41.6%, 「작은 도서관 건립」 26.9%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명품 교육도시 기반조성 교육사업 인지도는 15-19세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55.5%, 40대 53.5% 순으로 나타남
- 명품 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사업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명품교육도시 기반사업으로 『영어체험센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명품교육도시 군산 건설을 위한 중요 사업]



[표 5] 명품 교육도시 기반조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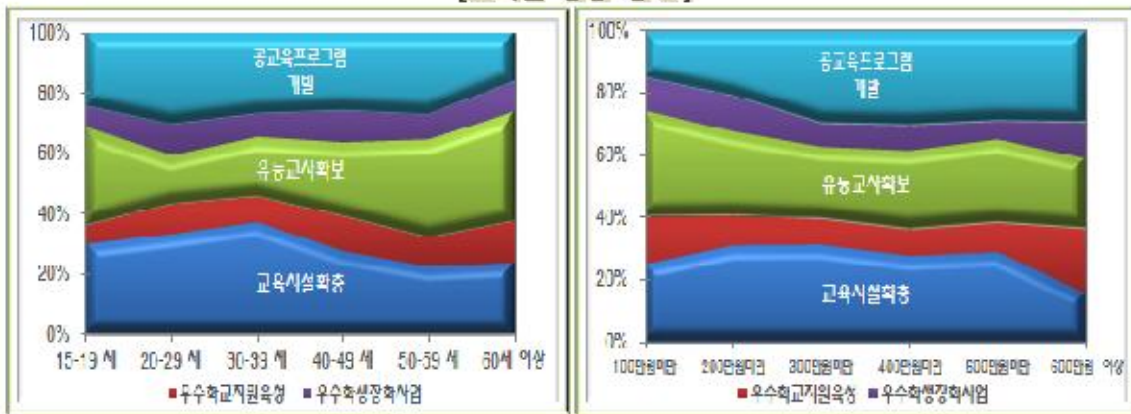
	합계	교육사업 모름	교육사업 알고있음	명품교육도시 군산 건설을 위한 중요 사업					
				시립 도서관	작은 도서관	영어 체험센터	해외 연수지원	평생학습 도시조성	개방형 학교지원
계	1000	580	420	41.6	26.9	20.3	6.0	4.5	0.7
남	1000	562	438	40.0	27.6	20.6	6.6	4.7	0.5
여	1000	596	404	43.1	26.3	20.0	5.4	4.3	0.9
15-19세	1000	379	621	34.8	23.5	28.8	11.4	1.5	0.0
20-29세	1000	549	451	39.7	26.6	24.2	6.2	2.1	1.2
30-39세	1000	446	555	45.5	25.5	21.5	2.2	3.7	1.5
40-49세	1000	465	535	36.5	29.7	20.5	7.0	6.0	0.3
50-59세	1000	607	393	46.9	23.5	16.5	6.1	6.4	0.6
60세 이상	1000	796	204	41.6	28.8	18.0	6.6	4.5	0.5
초졸 이하	1000	869	131	43.3	29.1	14.1	7.0	5.5	1.0
중졸	1000	585	415	38.7	31.8	20.6	5.7	3.2	0.0
고졸	1000	527	473	38.2	26.8	23.4	5.5	5.0	1.1
대졸 이상	1000	414	586	45.4	23.4	21.5	5.9	3.5	0.3

파. 교육질 향상 방안

군산시 교육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교육시설확충』 28.7%, 『유능교사 확보』 27.8%,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 23.7%, 『우수학교 지원육성』 10.6%, 『우수학생 장학사업』 9.2%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군산시 교육수준의 향상방안에 대해, 15-19세 『유능교사확보』 32.6%, 20대, 30대, 40대 『교육시설확충』 33.6%, 37.4%, 28.0%, 50대와 60세 이상 『유능교사확보』 32.6%, 36.3%로 나타남
-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인 경우 『유능교사확보』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3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인 경우 『교육시설확충』이 31.2%,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교육질 향상 방안]



[표 52] 교육질 향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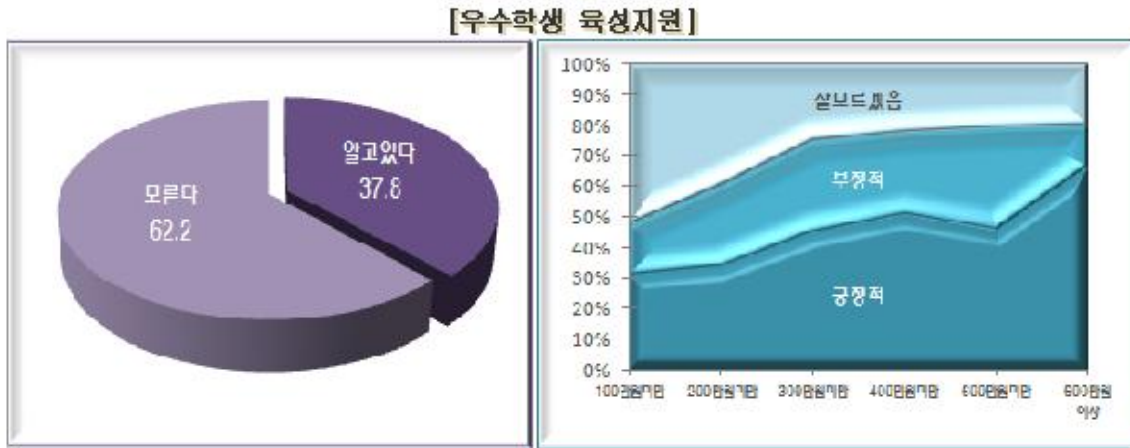
(단위 : %)

	한계	교육시설 확충	우수학교 지원육성	유능교사 확보	우수학생 장학사업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	100.0	28.7	10.6	27.8	9.2	23.7
15-19 세	100.0	30.3	6.1	32.6	6.8	24.2
20-29 세	100.0	33.6	9.8	16.4	10.3	29.9
30-39 세	100.0	37.4	8.4	20.0	7.7	26.5
40-49 세	100.0	28.0	11.3	24.7	10.5	25.5
50-59 세	100.0	22.9	9.5	32.6	8.2	26.8
60세 이상	100.0	24.2	13.6	36.3	9.8	16.1
100만원 미만	100.0	25.3	14.9	34.1	10.2	15.5
100이상-200미만	100.0	31.2	9.3	27.2	11.1	21.2
200이상-300미만	100.0	31.4	8.1	23.4	7.3	29.8
300이상-400미만	100.0	27.9	8.3	25.5	7.9	30.4
400이상-600미만	100.0	29.1	9.2	26.9	5.7	29.1
600만원 이상	100.0	15.9	20.5	22.7	11.4	29.5

하. 우수학생 육성지원

주말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군산시 우수학생 육성지원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알고있다』 37.8%, 『모른다』 62.2%로 나타났으며, 우수학생지원에 대한 『긍정적』이라는 견해는 39.3%로 나타남

- 우수학생 육성지원 교육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남자 39.4%, 여자 36.4%로 나타남
- 우수학생 육성지원 교육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알고있다』 와 『긍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3] 우수학생 육성지원

(단위 : %)

	합계	알고있다	모른다	우수학생지원에 대한 견해		
				긍정적	부정적	잘모르겠음
계	100.0	37.8	62.2	39.3	24.8	35.9
남	100.0	39.4	60.6	41.7	23.8	34.5
여	100.0	36.4	63.6	37.1	25.7	37.2
초	100.0	11.5	88.5	20.9	13.9	65.2
중	100.0	34.7	65.3	37.1	21.0	41.9
고	100.0	44.5	55.5	44.3	27.2	28.5
대	100.0	51.9	48.1	48.9	31.8	19.3
100만원미만	100.0	21.0	79.0	30.9	16.3	52.8
100이상-200미만	100.0	35.6	64.4	33.6	26.3	40.1
200이상-300미만	100.0	48.0	52.0	44.6	29.8	25.6
300이상-400미만	100.0	50.3	49.7	50.3	26.9	22.8
400이상-600미만	100.0	50.4	49.6	45.4	33.3	21.3
600만원 이상	100.0	40.9	59.1	65.9	13.6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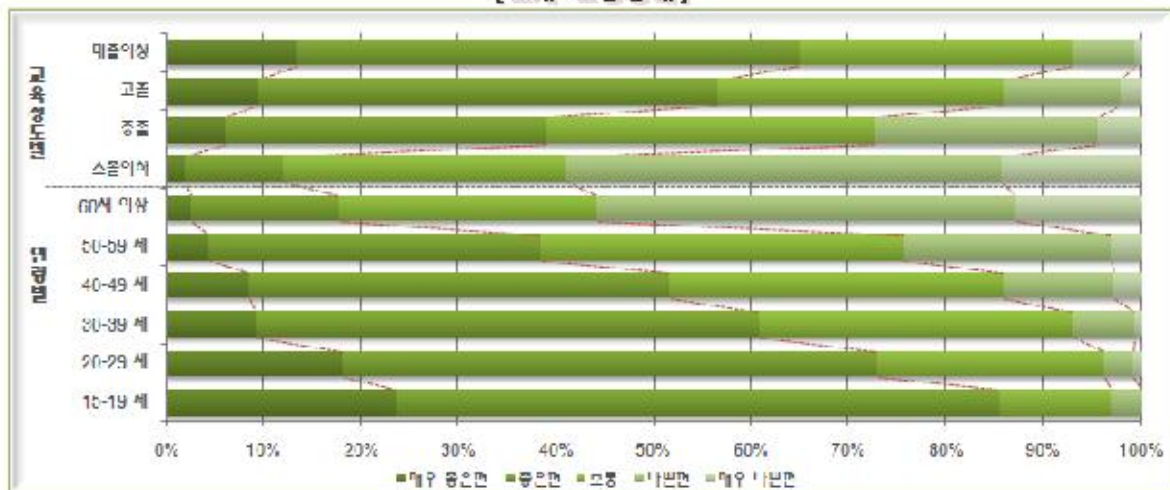
3 건강과 보건부문

가. 현재 건강상태

현재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좋은편(좋은편+매우좋은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7%으로 나타나, **나쁜편(나쁜편+매우나쁜편)** 이라고 응답한 23.9% 보다 22.8% 높게 나타났다.

-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 건강상태에 대하여 『좋은편』, 『매우 좋은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좋은편』, 『매우 좋은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건강상태]



[표 54] 현재 건강상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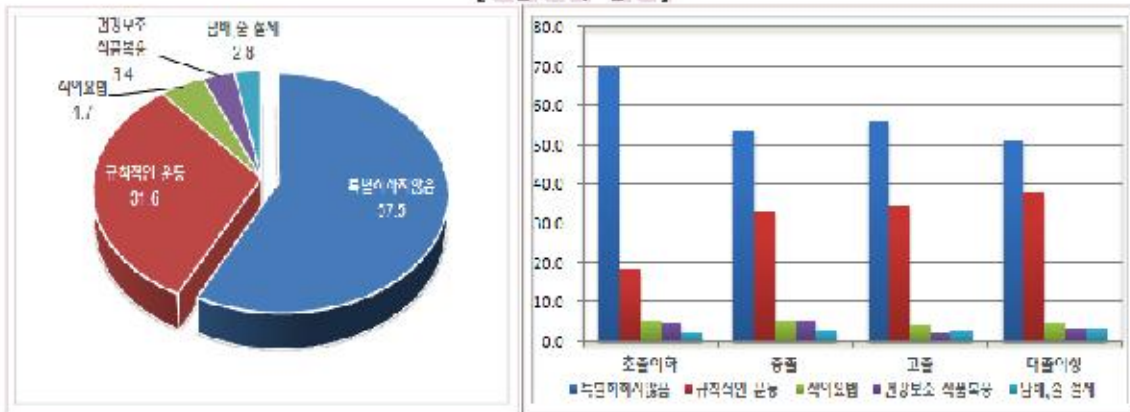
	합계	매우 좋은편	좋은편	보통	나쁜편	매우 나쁜편
계	100.0	8.4	38.3	29.4	19.2	4.7
연령대						
15-19세	100.0	23.5	62.1	11.4	3.0	0.0
20-29세	100.0	18.0	54.9	23.4	2.9	0.8
30-39세	100.0	9.2	51.7	32.2	6.4	0.5
40-49세	100.0	8.5	43.2	34.2	11.3	2.8
50-59세	100.0	4.3	34.1	37.2	21.3	3.1
60세 이상	100.0	2.6	15.2	26.4	43.0	12.8
교육정도						
초졸 이하	100.0	1.9	10.0	29.1	44.7	14.3
중졸	100.0	6.0	33.1	33.5	23.0	4.4
고졸	100.0	9.3	47.3	29.4	11.9	2.1
대졸 이상	100.0	13.4	51.7	28.0	6.4	0.5

나. 건강관리 방법

평상시 건강관리를 묻는 질문에 57.5%가 『특별히 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규칙적인 운동』 31.6%, 『식이요법』 4.7%, 『건강보조식품 복용』 3.4%, 『담배, 술 절제』 2.8% 순으로 나타남

- 평상시 건강관리방법을 보면 『특별히 하지 않음』이 남자가 53.3%, 여자가 6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5.4%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건강관리 방법으로 『규칙적인 운동』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건강관리 방법]



[표 55] 건강관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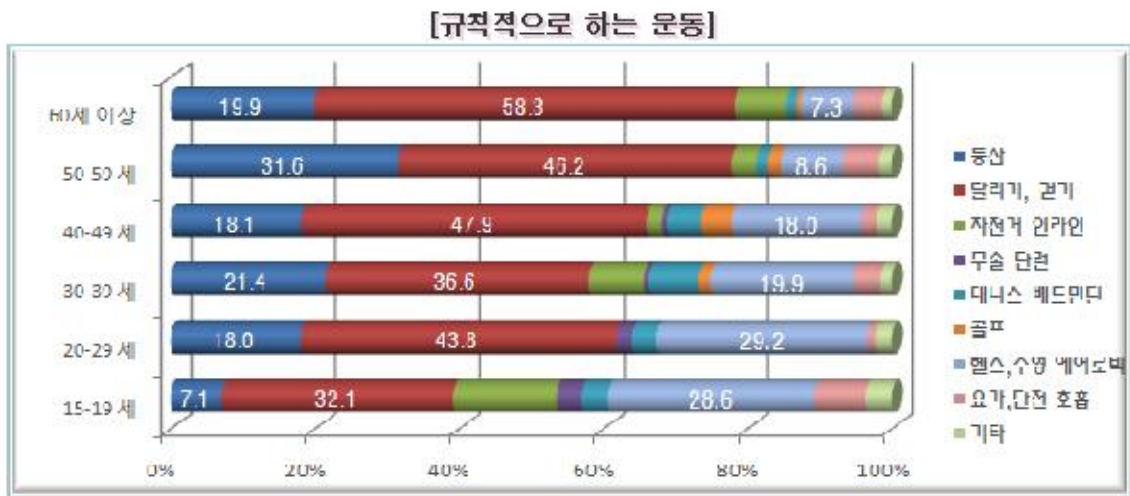
(단위: %)

	합계	특별히 하지 않음	규칙적인 운동	식이요법	건강보조식품복용	담배, 술 절제	기타
계	100.0	57.5	31.6	4.7	3.4	2.8	0.0
남	100.0	53.3	34.4	3.6	3.3	5.4	0.0
여	100.0	61.5	29.0	5.7	3.5	0.3	0.0
초졸이하	100.0	69.7	18.2	5.3	4.5	2.3	0.0
중졸	100.0	54.0	32.7	5.3	5.2	2.8	0.0
고졸	100.0	56.0	34.8	4.2	2.2	2.8	0.0
대졸이상	100.0	51.3	37.9	4.4	3.2	3.2	0.0
100만원미만	100.0	64.6	25.5	4.5	3.2	2.2	0.0
100이상-200미만	100.0	56.5	33.0	4.7	2.7	3.1	0.0
200이상-300미만	100.0	55.9	31.3	4.8	4.8	3.2	0.0
300이상-400미만	100.0	49.7	40.0	5.5	1.4	3.4	0.0
400이상-600미만	100.0	56.8	34.0	2.8	5.0	1.4	0.0
600만원 이상	100.0	54.5	31.8	4.6	6.8	2.3	0.0

다.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

건강관리 방법 중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으로는 『달리기·걷기』 46.5%, 『등산』 21.1%, 『헬스·수영·에어로빅』 16.2% 순으로 나타남

-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은 남자와 여자 모두 『달리기·걷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0대와 20대의 경우에는 『달리기·걷기』 다음으로 『헬스·수영·에어로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30대 이상인 경우는 『달리기·걷기』 다음으로 『등산』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55]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

(단위: %)

	합계	등산	달리기, 걷기	자전거 인라인	무술 단련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헬스, 수영 에어로빅	요가, 단전 호흡	기타
계	100.0	21.1	46.5	4.8	0.8	3.6	1.7	16.2	3.5	1.8
남	100.0	22.7	44.5	6.3	0.9	6.0	2.6	11.8	2.3	2.9
여	100.0	19.2	48.7	3.2	0.7	1.0	0.6	21.2	4.8	0.6
15-19세	100.0	7.1	32.1	14.3	3.6	3.6	0.0	28.6	7.1	3.6
20-29세	100.0	18.0	43.8	0.0	2.2	3.4	0.0	29.2	1.1	2.3
30-39세	100.0	21.4	36.6	7.6	0.8	6.9	1.5	19.9	3.8	1.5
40-49세	100.0	18.1	47.9	2.1	0.7	4.8	4.2	18.0	2.1	2.1
50-59세	100.0	31.6	46.2	3.4	0.0	1.7	1.7	8.6	5.1	1.7
60세 이상	100.0	19.9	58.3	7.3	0.0	1.3	0.6	7.3	4.0	1.3

라. 주 이용 의료시설

주 이용 의료시설로는 『동네의원』 70.9%, 『군산시내 종합병원』 19.3%, 『보건소』 5.1%, 『전주·익산 종합병원』 3.3%, 『대도시 종합병원』 1.4%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종합병원』 및 『보건소』 이용 비율이 높으며, 『군산시내 종합병원』 및 『보건소』는 60세 이상에서 각각 22.3%, 11.7%로 가장 높고, 『동네의원』은 15-19세가 8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별 주 이용의료시설은 전 구간에 걸쳐 『동네의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소』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남

[주 이용 의료시설]



[표 57] 주 이용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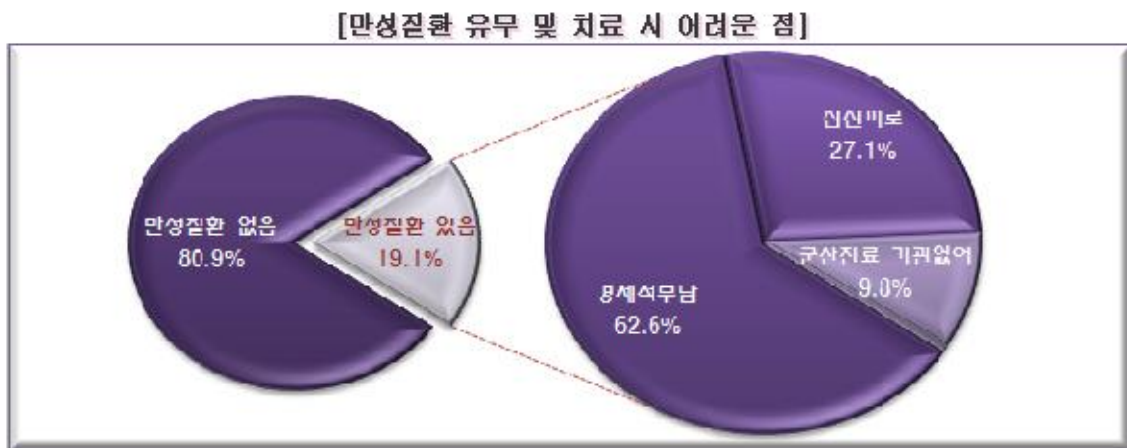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보건소	동네의원	군산시내 종합병원	전주·익산 종합병원	대도시 종합병원
계	100.0	5.1	70.9	19.3	3.3	1.4
15-19 세	100.0	3.8	84.8	9.1	2.3	0.0
20-29 세	100.0	2.1	76.2	19.3	1.6	0.8
30-39 세	100.0	1.2	79.0	16.3	3.0	0.5
40-49 세	100.0	1.0	73.2	21.7	2.8	1.3
50-59 세	100.0	6.1	69.5	18.6	3.1	2.7
60세 이상	100.0	11.7	58.9	22.3	5.2	1.9
100만원 미만	100.0	10.4	64.4	19.6	3.8	1.8
100이상-200미만	100.0	4.9	71.1	20.5	3.3	0.2
200이상-300미만	100.0	2.4	74.4	18.6	3.6	1.0
300이상-400미만	100.0	1.7	75.9	17.9	3.5	1.0
400이상-600미만	100.0	3.6	71.6	17.0	1.4	6.4
600만원 이상	100.0	0.0	72.7	22.7	2.3	2.3

마. 만성질환 유무 및 치료 시 어려운 점

만성질환의 유무를 묻는 질문의 경우,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0.9%,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1%이며, 치료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제적 부담』 62.6%, 『심신피로』 27.1%, 『군산에 진료기관이 없어서』 9.8%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자(22.1%)가 남자(15.9%)보다 만성질환 유병율이 6.2%높게 났으며, 만성질환 치료시 어려운 점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경제적 부담』 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만성질환 유병율은 교육정도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 시 어려운 점에서도 교육정도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58] 만성질환 유무 및 치료 시 어려운 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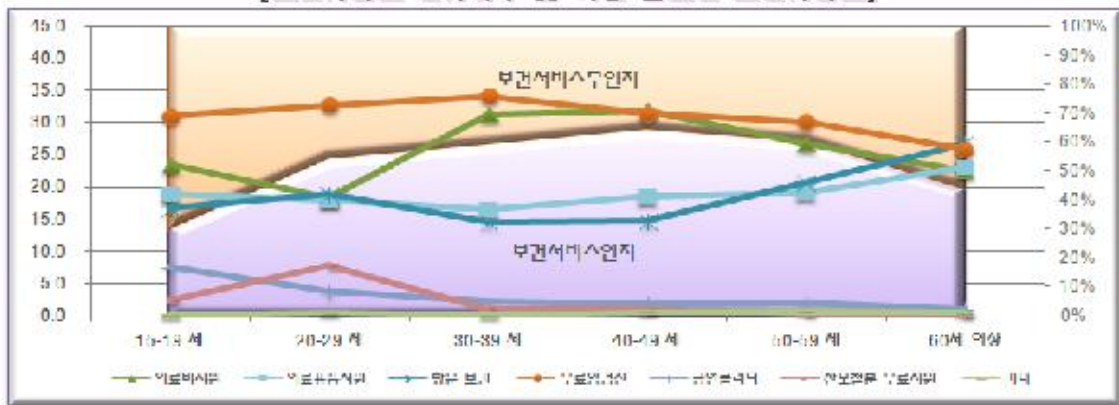
	합계	만성질환 없음	만성질환 있음	치료 시 어려운 점			
				경제적 부담	심신피로	군산진료 기관없어	기타
계	1000	809	191	626	271	98	05
남	1000	841	159	584	311	105	00
여	1000	779	221	656	244	92	08
15-19 세	1000	985	15	1000	00	00	00
20-29 세	1000	979	21	600	400	00	00
30-39 세	1000	958	42	353	529	118	00
40-49 세	1000	915	85	559	206	235	00
50-59 세	1000	805	195	563	328	109	00
60 세 이상	1000	522	479	664	249	79	07

바. 보건서비스 인지여부 및 가장 필요한 보건서비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건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53.8%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필요한 보건서비스로는 『무료암검진』 30.4%, 『의료비 지원』 26.4%, 『방문보건』 및 『의료용품지원』이 각각 19.6%, 19.5%로 나타남

- 가장 필요한 보건서비스로 40대에서는 『의료비 지원』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에서는 『방문보건서비스』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400-600만원 미만 소득수준인 경우 가장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의료비지원』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 소득수준의 경우에는 『무료 암 검진』이 가장 높게 나타남

[보건서비스 인지여부 및 가장 필요한 보건서비스]



[표 50] 보건서비스 인지여부 및 가장 필요한 보건서비스

(단위 : %)

	합계	가장 필요한 보건서비스								
		보건서비스 인지	보건서비스 무인지	의료비 지원	의료용품 지원	방문 보건	무료암 검진	금연 클리닉	산모결혼 무료지원	기타
계	1000	53.8	46.2	26.4	19.5	19.6	30.4	2.3	1.5	0.3
15-19 세	1000	30.3	69.7	23.5	18.9	16.7	31.1	7.6	2.3	0.0
20-29 세	1000	54.5	45.5	18.4	18.0	18.9	32.8	3.7	7.8	0.4
30-39 세	1000	59.4	40.6	31.4	16.6	14.6	34.2	2.2	1.0	0.0
40-49 세	1000	64.5	35.5	32.0	18.5	14.7	31.5	1.8	1.0	0.5
50-59 세	1000	60.4	39.7	26.8	19.2	20.7	30.2	2.1	0.3	0.6
60 세 이상	1000	43.9	56.1	22.6	23.1	26.8	25.9	1.0	0.2	0.4
100 만 원 미만	1000	44.9	55.1	23.2	21.9	25.3	26.7	2.3	0.4	0.2
100이상-200미만	1000	54.6	45.4	25.6	15.8	23.2	31.2	2.0	1.5	0.7
200이상-300미만	1000	59.1	40.9	27.8	21.6	15.3	30.5	2.2	2.6	0.0
300이상-400미만	1000	55.5	44.5	28.3	17.6	13.1	36.2	2.4	2.1	0.3
400이상-600미만	1000	61.7	38.3	33.3	22.7	8.5	28.4	4.3	2.1	0.7
600만원 이상	1000	59.1	40.9	25.0	13.6	29.6	31.8	0.0	0.0	0.0

사. 보건지소(진료소) 필요서비스

의료기관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지역 보건지소(진료소)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로는 『치과진료』가 32.5%로 가장 높고, 『물리치료』 27.5%, 『한방진료』 17.2%, 『내과진료』 15.4% 순으로 나타남

- 보건지소(진료소)에 필요한 서비스로는 『치과진료』의 경우 15-19세가 40.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으며, 『내과진료』의 경우 50대가 18.6%로 나타남
- 소득 수준별로 보면 모든 소득수준에서 『치과진료』와 『내과진료』가 1·2순위를 나타냄



[표 60] 보건지소(진료소) 필요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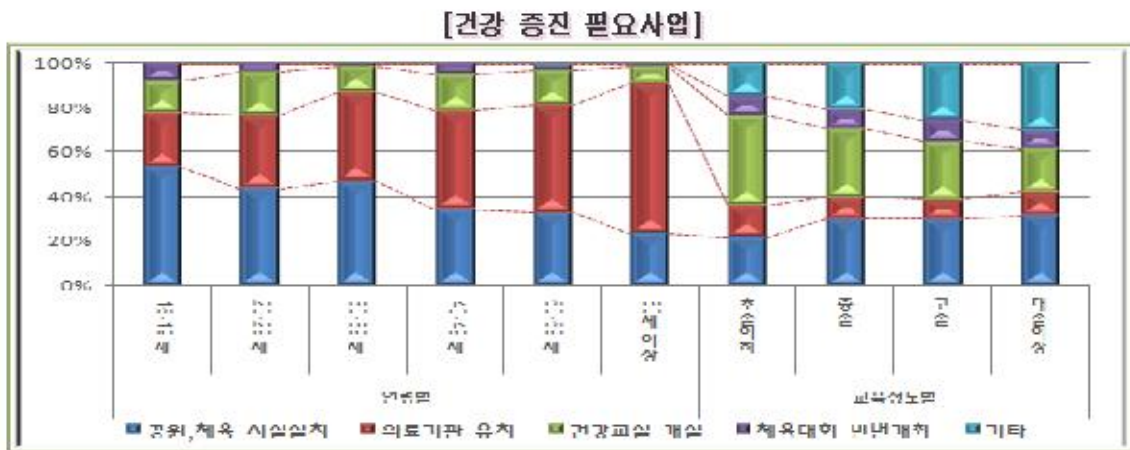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내과진료	시력보정 지원	기타
계	100.0	32.5	17.2	27.5	15.4	6.8	0.6
남	100.0	32.7	16.7	26.3	16.6	7.3	0.4
여	100.0	32.3	17.7	28.6	14.3	6.3	0.8
15-19세	100.0	40.1	18.2	16.7	10.6	14.4	0.0
20-29세	100.0	38.9	11.9	26.2	14.8	7.8	0.4
30-39세	100.0	39.3	13.9	26.5	16.3	3.5	0.5
40-49세	100.0	34.0	17.2	26.5	15.0	6.5	0.8
50-59세	100.0	33.2	18.3	25.3	18.6	4.6	0.0
60세 이상	100.0	21.8	21.1	33.0	14.7	8.4	1.0
100만원 미만	100.0	30.9	19.0	27.6	14.2	7.2	1.1
100이상-200미만	100.0	34.3	16.7	27.4	14.5	6.4	0.7
200이상-300미만	100.0	32.3	16.3	30.0	14.7	6.7	0.0
300이상-400미만	100.0	27.9	19.0	25.9	20.3	6.2	0.7
400이상-600미만	100.0	41.8	12.1	22.7	13.5	9.9	0.0
600만원 이상	100.0	31.8	18.2	22.7	25.0	2.3	0.0

아. 건강 증진 필요사업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유치』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원,체육시설 설치』 35.9%, 『건강교실 개최』 12.9%, 『체육대회 빈번개최』 3.1%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필요사업은 30대까지는 『공원·체육시설 설치』, 『의료기관 유치』, 『건강교실 개설』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40대부터는 『의료기관 유치』, 『공원·체육시설 설치』, 『건강교실 개설』 순으로 나타남
- 또한, 『공원·체육시설 설치』는 15-19세에서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유치』는 60세이상에서 67.5%, 『건강교실 개최』는 20대에서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 건강 증진 필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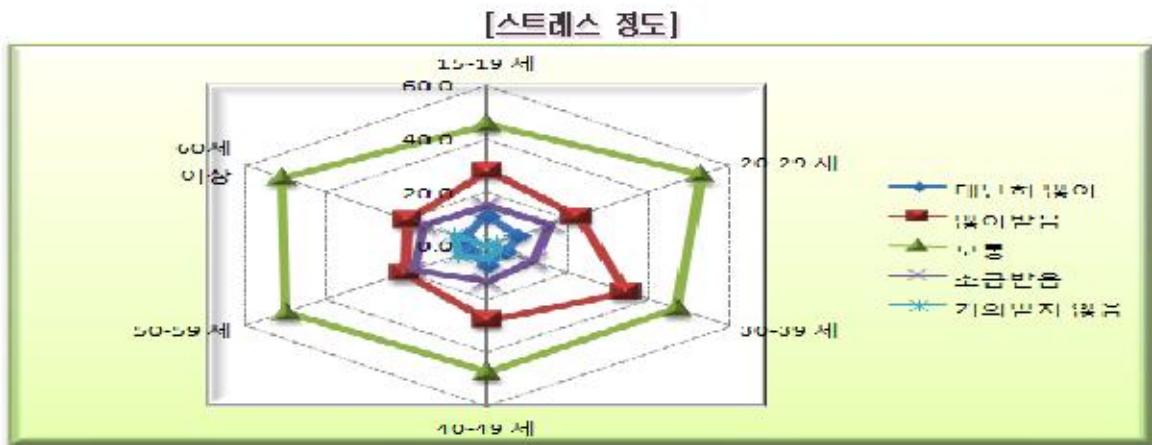
(단위: %)

	합계	공원, 체육 시설 설치	의료기관 유치	건강교실 개설	체육대회 빈번개최	기타
계	100.0	35.9	47.8	12.9	3.1	0.3
15-19세	100.0	53.0	24.2	14.4	8.3	0.0
20-29세	100.0	43.8	32.4	19.7	4.1	0.0
30-39세	100.0	47.0	39.9	11.6	1.5	0.0
40-49세	100.0	34.5	44.2	16.3	5.0	0.0
50-59세	100.0	33.2	47.9	15.3	2.7	0.9
60세 이상	100.0	23.5	67.5	7.1	1.5	0.4
초졸 이하	100.0	21.1	70.1	6.8	1.4	0.6
중졸	100.0	29.0	53.7	12.5	4.0	0.8
고졸	100.0	38.6	41.2	16.3	3.9	0.0
대졸 이상	100.0	47.1	35.7	14.0	3.2	0.0

자. 스트레스 정도

평상시 군산시민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보통』 49.1%, 『많이 받음』 25.0%, 『조금받음』 14.7%, 『대단히 많이 받음』 6.1%로 나타남

- 성별 스트레스 정도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많이 받음, 대단히 많이 받음 포함)가 남자 33.2%, 여자 29.2%로 남자가 여자보다 4%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스트레스 정도 중 『대단히 많이 받고 있다』는 15-19세가 1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많이 받고 있는 편이다』는 30대가 34.4%로 가장 많이 나타남
- 또한 연령대별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심한(많이 받음, 대단히 많이 받음 포함) 연령대는 15-19세가 39.4%, 30대가 38.8%, 40대 34.9%, 20대 29.5%, 60세 이상 25.5%로 나타났으며, 50대가 24.7%로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62] 스트레스 정도

(단위 : %)

	합계	대단히 많이 받음	많이 받음	보통	조금 받음	거의 받지 않음
계	100.0	6.1	25.0	49.1	14.7	5.1
남	100.0	6.6	26.6	47.7	15.4	3.7
여	100.0	5.7	23.5	50.3	14.0	6.5
15-19 세	100.0	11.4	28.0	45.4	15.2	0.0
20-29 세	100.0	7.4	22.1	52.9	15.6	2.0
30-39 세	100.0	4.4	34.4	46.8	11.4	3.0
40-49 세	100.0	7.2	27.7	47.3	13.3	4.5
50-59 세	100.0	4.3	20.4	49.7	18.3	7.3
60세 이상	100.0	5.8	19.7	50.8	15.4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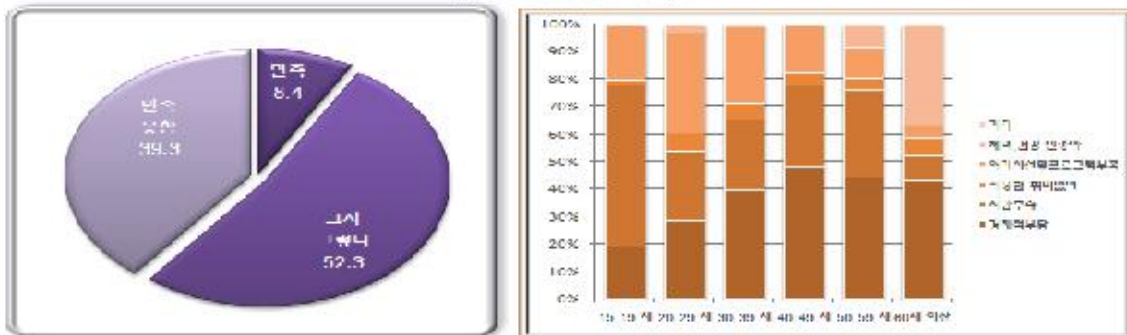
4 문화와 여가부문

가. 문화생활 만족도

현재 군산 시민이 느끼는 문화생활 만족도는 「보통이상의 만족」 60.7%, 「불만족」 39.3%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사유로는 「경제적부담」 40.2%, 「시간부족」 25.6%,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17.2%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문화생활 불만족 사유로 15-19세의 경우, 시간부족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36.2%, 30대 이상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별 문화생활 불만족 사유로 300만원 미만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에서는 시간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적 부담 : 100만원 미만 49.8%, 100만원대 46.8%, 200만원대 36.6%
 - 시간부족 : 300만원대 38.3%, 400-600만원 미만 51.2%, 600만원 이상 40.0%

[문화생활 만족도]



[표 63] 문화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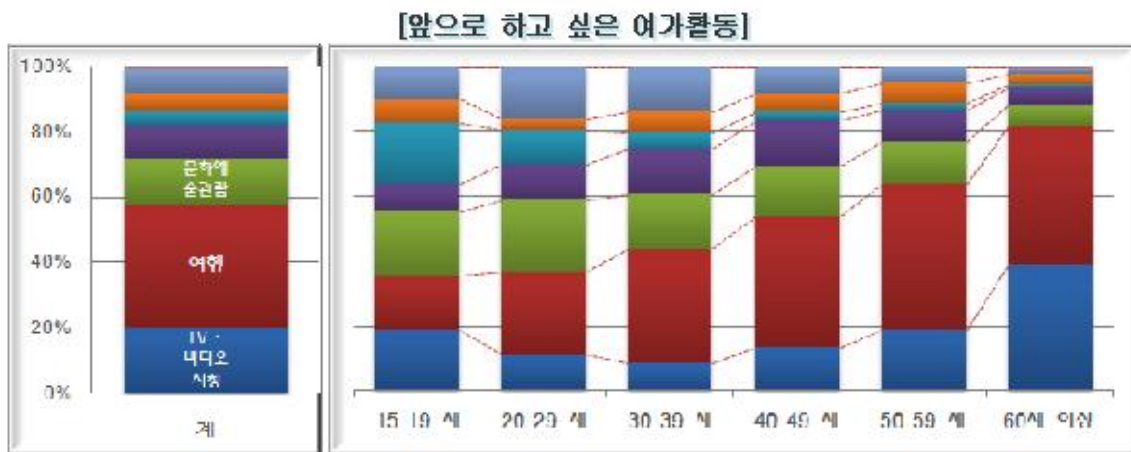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불만족 사유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	책임 부담 취미없어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체력, 건강 안중어	기타
계	100.0	84	52.3	39.3	40.2	25.6	5.0	17.2	12.0	0.0
15-19세	100.0	53	47.0	47.7	19.1	58.7	1.6	20.6	0.0	0.0
20-29세	100.0	94	53.3	37.3	28.6	25.3	6.6	36.2	3.3	0.0
30-39세	100.0	77	54.7	37.6	39.5	25.7	5.9	27.6	1.3	0.0
40-49세	100.0	92	48.5	42.3	47.9	30.2	4.1	17.2	0.6	0.0
50-59세	100.0	85	53.1	38.4	44.4	31.8	4.0	11.1	8.7	0.0
60세 이상	100.0	85	53.7	37.8	43.4	9.1	5.9	4.6	37.0	0.0
초졸 이하	100.0	47	52.0	43.2	44.6	11.9	6.2	2.8	34.6	0.0
중졸	100.0	125	52.0	35.5	52.3	23.8	5.7	6.8	11.4	0.0
고졸	100.0	73	50.8	41.9	37.3	34.6	5.0	18.5	4.6	0.0
대졸 이상	100.0	108	54.4	34.7	35.3	27.1	3.7	33.5	0.5	0.0

나.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 37.5%, 『TV·비디오 시청』 20.5%, 『문화예술관람』 14.1%, 『스포츠관람 및 활동』 10.1%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희망 여가활동은 15-19세는 『문화예술관람』 19.7%, 『TV·비디오 시청』 및 『컴퓨터게임·인터넷 검색』 이 각각 18.9%, 여행 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에서는 『여행』 25.8%, 『문화예술관람』 22.1%, 『자기개발』 16.2% 순으로 나타남
- 여가활동별 교육정도는 『TV·비디오시청』 은 초졸 이하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행』 고졸 37.9%, 『자기개발』 대졸이상 14.2%로 높게 나타남



[표 6]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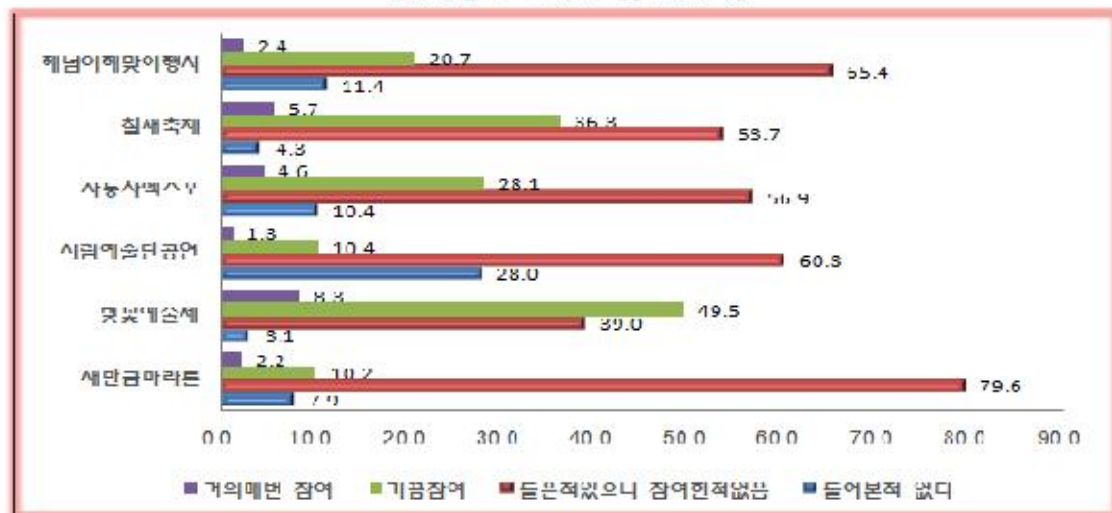
	합계	TV·비디오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관람 및 활동	컴퓨터게임·인터넷	창작적 취미	자기개발	기타
계	1000	20.5	37.5	14.1	10.1	4.5	5.0	8.2	0.1
남	1000	18.1	38.3	9.8	16.5	6.3	2.7	8.2	0.1
여	1000	22.7	36.8	18.2	4.1	2.9	7.1	8.2	0.0
15-19 세	1000	18.9	16.7	19.7	8.3	18.9	7.6	9.9	0.0
20-29 세	1000	11.1	25.8	22.1	10.7	10.6	3.7	16.0	0.0
30-39 세	1000	8.6	35.1	17.1	14.1	4.5	6.7	13.9	0.0
40-49 세	1000	13.2	40.7	15.7	13.8	3.0	5.3	8.3	0.0
50-59 세	1000	18.9	44.8	13.4	9.4	2.5	5.8	5.2	0.0
60세 이상	1000	38.9	42.7	6.7	5.2	1.0	3.1	2.2	0.2
초졸 이하	1000	43.5	41.8	5.3	2.9	2.0	2.9	1.6	0.0
중졸	1000	20.6	45.6	12.9	9.3	1.2	5.6	4.8	0.0
고졸	1000	14.4	37.9	15.6	11.3	6.8	5.3	8.6	0.1
대졸 이상	1000	9.5	30.7	19.8	14.5	5.2	6.1	14.2	0.0

다. 지역행사 인지도 및 참여도

지역행사 인지도에 대해서는 『벚꽃예술제』 96.9%, 『철새축제』 95.7%, 『새만금마라톤』 92.1%, 『자동차엑스포』 89.6%, 『해님이 해맞이 행사』 88.6%, 『시립예술단 공연』 72.0% 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행사 중 인지도도 높으면서 참여율도 높은 행사는 『벚꽃예술제』 (인지도 96.9%, 참여율 57.8%)로 나타났으며, 인지도와 참여도가 가장 낮은 행사는 『시립예술단 공연』 (인지도 72.0%, 참여율 11.7%)으로 나타남
- 지역행사 중 들은적은 있으나 참여한 적 없는 행사는 『새만금마라톤』 79.6%, 『해님이 해맞이 행사』 65.4%, 『시립예술단공연』 60.3% 순으로 나타남

[지역행사 인지도 및 참여도]



[표 66] 지역행사 인지도 및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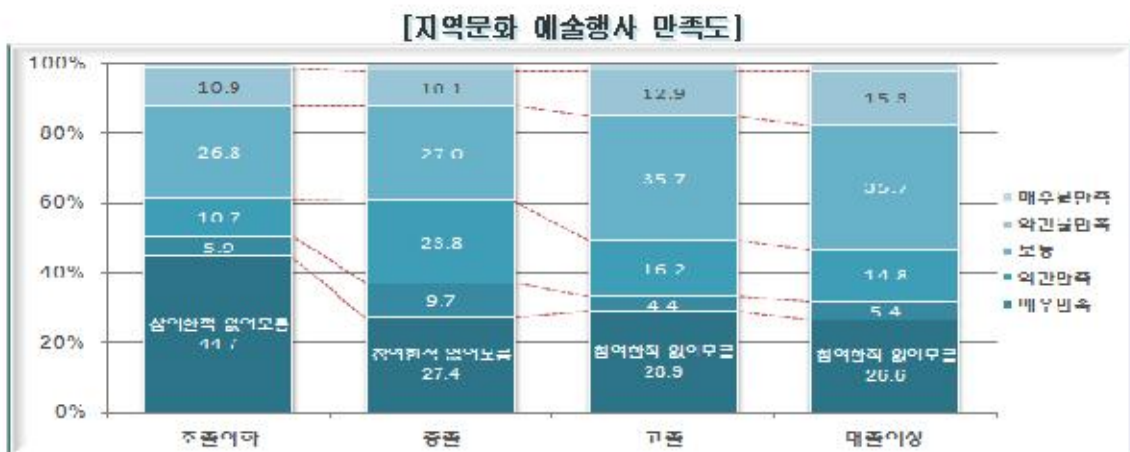
(단위 : %)

행사명	합계	들어본적 없다	인지도	들은적 있으나 참여한적 없음	기금 참여	거의 이번 참여
새만금마라톤	1000	79	921	79.6	102	2.2
벚꽃예술제	1000	31	969	39.0	495	8.3
시립예술단공연	1000	280	720	60.3	104	1.3
자동차엑스포	1000	104	896	56.9	281	4.6
철새축제	1000	43	957	53.7	363	5.7
해님이해맞이행사	1000	114	886	65.4	207	2.4

라. 지역문화 예술행사 만족도

지역문화 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32.6%, 「약간만족」 15.4%, 「약간불만족」 12.8%, 「매우만족」 5.7%, 「매우불만족」 1.8%로 나타남

- 응답자 중 31.7%는 『참여한적 없어 모름』으로 응답해 10명 중 3명은 지역문화 예술 행사에 『참여한적 없음』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지역문화 예술행사 참여도는 60세 이상에서 39.2%가 『참여한적 없어 모름』으로 응답해 가장 저조한 참여도를 나타남



[표 66] 지역문화 예술행사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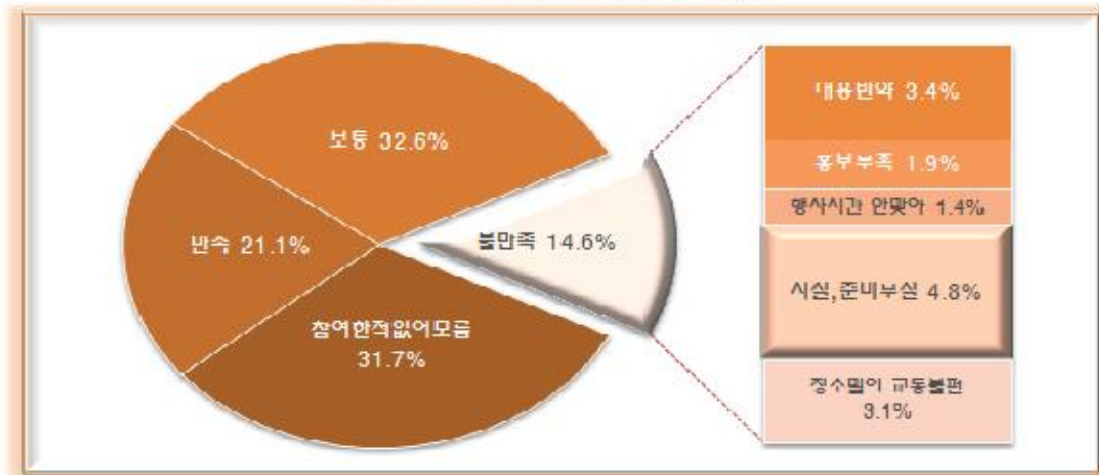
	합계	참여한적 없어 모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100.0	31.7	5.7	15.4	32.6	12.8	1.8
남	100.0	29.5	6.0	17.5	31.9	13.0	2.1
여	100.0	33.8	5.4	13.4	33.2	12.6	1.6
15-19세	100.0	32.6	8.3	12.9	33.3	10.6	2.3
20-29세	100.0	32.4	5.3	14.8	33.2	13.1	1.2
30-39세	100.0	28.0	3.5	15.6	37.1	14.1	1.7
40-49세	100.0	25.2	4.0	21.2	33.3	13.8	2.5
50-59세	100.0	30.2	7.3	14.3	35.1	11.6	1.5
60세 이상	100.0	39.2	7.1	12.6	27.1	12.3	1.7
초졸이하	100.0	44.7	5.9	10.7	26.8	10.9	1.0
중졸	100.0	27.4	9.7	23.8	27.0	10.1	2.0
고졸	100.0	28.9	4.4	16.2	35.7	12.9	1.9
대졸이상	100.0	26.6	5.4	14.8	35.7	15.3	2.2

마. 지역문화 예술행사 불만족 이유

지역문화행사 불만족 14.6%에 대한 행사 불만족 사유는 『시설 준비부실』 33.1%, 『내용빈약』 23.6%, 『교통불편』 21.0%, 『홍보부족』 12.8%, 『행사시간 안맞아』 9.5%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불만족 이유는 15-19세는 『내용빈약』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50대까지는 『시설 준비 부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에서는 『교통불편』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정도별 불만족 이유는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교통 불편』이 높게 나타남

[지역문화 예술행사 불만족 이유]



[표 67] 지역문화 예술행사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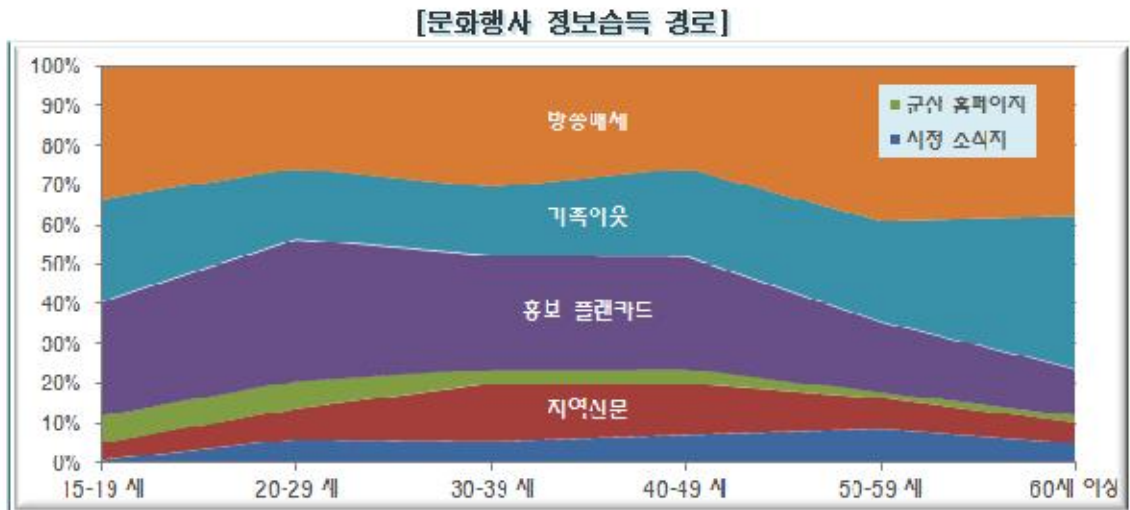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참여관심 없어모름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사유				
						내용빈약	홍보부족	행사시간 안맞아	시설, 준비 부실	정수없이 교통불편
계	1000	31.7	21.1	32.6	14.6	23.6	12.8	9.5	33.1	21.0
남	1000	29.5	23.6	31.9	15.0	23.0	12.5	11.2	35.5	17.8
여	1000	33.8	18.8	33.2	14.2	24.2	13.1	7.8	30.7	24.2
15-19세	1000	32.6	21.2	33.3	12.9	41.2	5.9	17.7	35.3	0.0
20-29세	1000	32.4	20.1	33.2	14.3	25.7	17.1	8.6	45.7	2.9
30-39세	1000	28.0	19.1	37.1	15.8	34.4	12.5	7.8	39.1	6.2
40-49세	1000	25.2	25.2	33.3	16.3	24.6	10.8	7.7	41.5	15.4
50-59세	1000	30.2	21.6	35.1	13.1	16.3	14.0	20.9	27.9	20.9
60세 이상	1000	39.2	19.7	27.1	14.0	13.6	13.6	4.9	18.5	49.4
초졸 이하	1000	44.7	16.6	26.9	11.9	17.2	8.6	3.5	10.3	60.3
중졸	1000	27.4	33.5	27.0	12.1	6.7	13.3	3.3	40.0	36.7
고졸	1000	28.9	20.6	35.7	14.8	27.1	16.8	12.2	32.7	11.2
대졸 이상	1000	26.6	20.2	35.7	17.5	28.2	10.9	11.8	43.6	5.5

바. 문화행사 정보습득 경로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로는 『방송매체』 32.6%, 『가족이웃』 25.8%, 『홍보 플랜카드』 23.0%, 『지역신문』 9.2%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정보 습득 경로는 남자는 『방송매체』 33.3%, 『홍보 플랜카드』 25.5%, 『가족이웃』 19.4% 순인 반면 여자는 『방송매체』, 『가족이웃』 이 공동1위로 31.9%, 『홍보플랜카드』 20.6% 순으로 나타나 『방송매체』와 『가족이웃』이 6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8] 문화행사 정보습득 경로

(단위 : %)

	합계	시정 소식지	지역신문	군산 홈페이지	홍보 플랜카드	가족이웃	방송매체
계	100.0	6.0	9.2	3.4	23.0	25.8	32.6
남	100.0	7.2	10.3	4.3	25.5	19.4	33.3
여	100.0	4.9	8.1	2.6	20.6	31.9	31.9
15-19 세	100.0	0.8	4.5	6.8	28.8	25.8	33.3
20-29 세	100.0	6.1	7.8	7.0	35.7	17.6	25.8
30-39 세	100.0	5.7	14.4	3.7	28.7	17.1	30.4
40-49 세	100.0	7.2	13.0	3.7	28.3	22.0	25.8
50-59 세	100.0	8.6	7.9	1.5	17.7	25.3	39.0
60세 이상	100.0	5.2	5.2	1.7	11.8	38.3	37.8
초졸 이하	100.0	4.1	3.3	0.4	9.6	45.1	37.5
중졸	100.0	6.1	6.1	2.8	16.1	29.8	39.1
고졸	100.0	5.9	13.0	3.2	27.9	20.1	29.9
대졸 이상	100.0	7.7	10.5	6.2	30.4	15.9	29.3

사. 군산시 관광명소

시민이 생각하는 군산시 관광명소는 『은파유원지』 46.3%, 『새만금방제 및 비응도』 26.8%, 『월명공원』 10.0%, 『하구둑 및 철새조망대』 9.2% 순으로 나타남

- 군산시 관광명소에 대해 남자 응답자의 경우 『은파유원지』 43.0%, 『새만금방제 및 비응도』 31.3%, 『하구둑 및 철새조망대』가 8.9%로 나타났으며, 여자 응답자의 경우는 『은파유원지』 49.5%, 『새만금방제 및 비응도』 22.7%, 『하구둑 및 철새조망대』가 9.6%로 나타남



[표 68] 군산시 관광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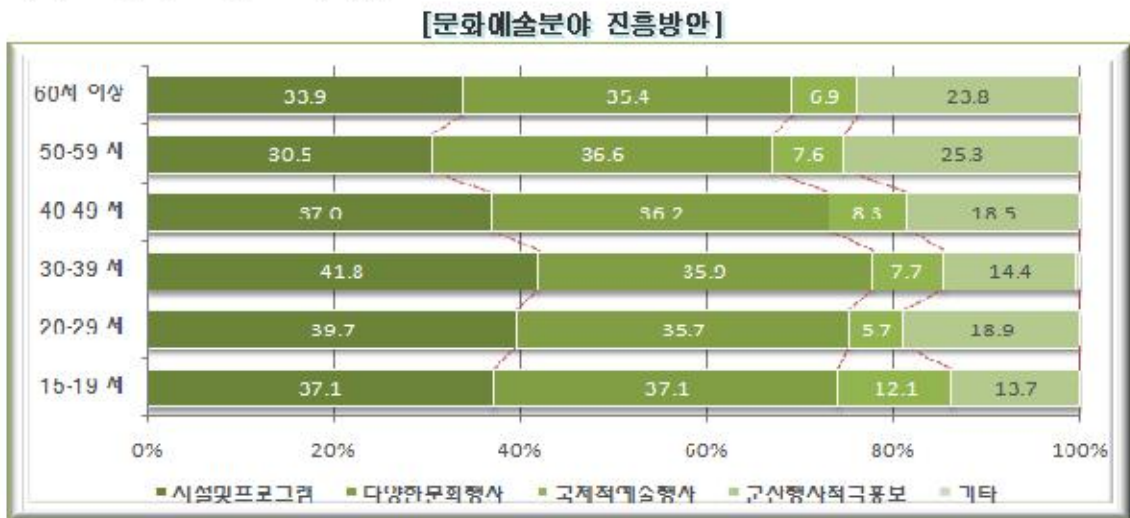
(단위: %)

	합계	은파유원지	하구둑 및 철새조망대	새만금 방조제 및 비응도	선유도 및 고군산군도	내항	월명공원	기타
계	100.0	46.3	9.2	26.8	6.8	0.8	10.0	0.1
남	100.0	43.0	8.9	31.3	7.8	1.0	7.9	0.1
여	100.0	49.5	9.6	22.7	5.7	0.5	11.9	0.1
15-19세	100.0	5.0	9.8	16.7	10.6	1.5	11.4	0.0
20-29세	100.0	5.2	9.0	23.8	7.8	0.8	5.7	0.8
30-39세	100.0	5.0	8.9	26.7	8.4	0.7	4.5	0.0
40-49세	100.0	4.3	9.2	27.7	5.8	0.8	13.0	0.0
50-59세	100.0	4.0	8.2	27.8	8.2	0.9	14.0	0.0
60세 이상	100.0	4.5	10.0	29.4	4.1	0.5	10.9	0.0
초졸이하	100.0	4.6	9.2	29.1	4.7	0.6	9.5	0.0
중졸	100.0	4.1	9.3	30.2	6.5	0.8	11.3	0.0
고졸	100.0	4.8	8.6	25.4	6.4	1.1	10.4	0.0
대졸이상	100.0	4.5	10.0	25.3	8.9	0.5	9.4	0.3

아. 문화예술분야 진흥방안

군산시가 문화예술분야 진흥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문으로는 『문화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36.3%, 『다양한 문화행사 활성화』 36.0%, 『군산행사 적극 홍보』 20.0%, 『국제적 예술행사 유치』 7.6%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문화예술분야 진흥방안으로 40대까지는 『문화·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1순위로 선택했으나, 50대 이상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 활성화』가 1순위로 나타남
- 교육정도별 문화예술분야 진흥방안에 대한 응답은 대졸이상의 경우 『문화·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41.4%, 중졸이상 고졸이하의 경우 『다양한 문화행사 활성화』가 각각 37.9%, 37.4%로 나타남



[표 70] 문화예술분야 진흥방안

(단위: %)

	관계	문화예술시설 및 프로그램확충	다양한 문화행사 활성화	국제적 예술행사 유치	군산행사 적극홍보	기타
계	100.0	36.3	36.0	7.6	20.0	0.1
남	100.0	36.5	35.9	9.1	18.5	0.0
여	100.0	36.3	36.0	6.2	21.4	0.1
15-19세	100.0	37.1	37.1	12.1	13.7	0.0
20-29세	100.0	39.7	35.7	5.7	18.9	0.0
30-39세	100.0	41.8	35.9	7.7	14.4	0.2
40-49세	100.0	37.0	36.2	8.3	18.5	0.0
50-59세	100.0	30.5	36.6	7.6	25.3	0.0
60세 이상	100.0	33.9	35.4	6.9	23.8	0.0
초졸이하	100.0	34.8	34.2	7.2	23.8	0.0
중졸	100.0	29.0	37.9	7.7	25.4	0.0
고졸	100.0	35.6	37.4	8.4	18.5	0.1
대졸이상	100.0	41.4	35.0	7.0	16.6	0.0

5 사회와 복지부문

가. 관심 사회복지 대상

군산시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사회복지대상은 『노인』 39.8%, 『저소득층』 24.6%, 『결손가정』 19.1%, 『장애인』 16.5%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관심 사회복지 대상은 20대까지는 『저소득층』, 『노인』, 『결손가정』, 『장애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30-50대까지는 『노인』, 『저소득층』, 『결손가정』, 『장애인』 순으로, 60세 이상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결손가정』 순으로 나타남



[표 7] 관심 사회복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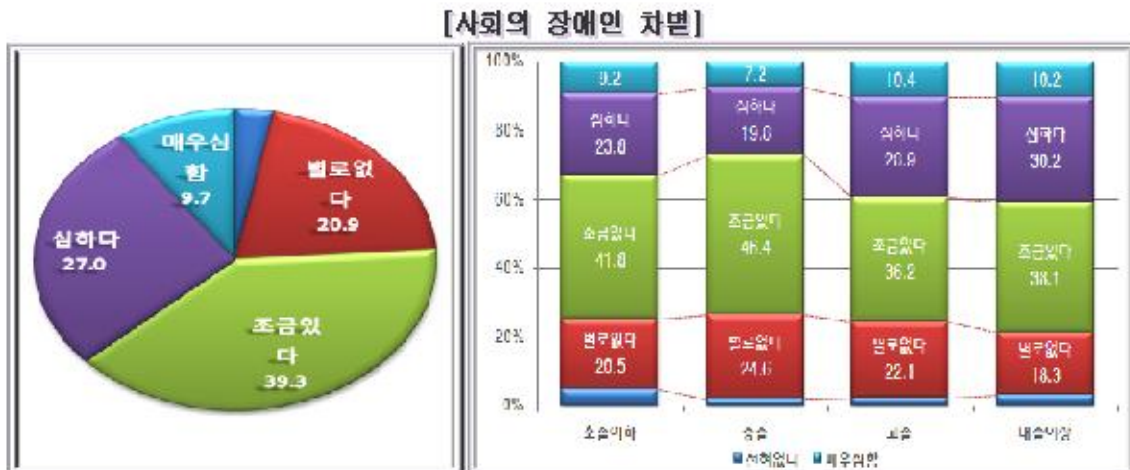
(단위 : %)

	기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저소득층
계	1000	39.8	16.5	19.1	24.6
남	1000	37.5	18.1	18.4	26.0
여	1000	42.0	14.9	19.8	23.3
15-19 세	1000	23.5	18.9	20.5	37.1
20-29 세	1000	27.0	18.4	23.4	31.2
30-39 세	1000	29.2	17.1	26.5	27.2
40-49 세	1000	34.7	13.5	23.0	28.8
50-59 세	1000	42.7	16.1	16.8	24.4
60세 이상	1000	58.2	16.9	10.6	14.3
초졸 이하	1000	56.8	15.4	9.6	18.2
중졸	1000	39.9	24.2	16.5	19.4
고졸	1000	36.5	14.1	21.2	28.2
대졸 이상	1000	30.4	17.0	25.2	27.4

나. 사회의 장애인 차별

사회적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조금있다」 39.3%, 「심하다」 27.0%, 「별로 없다」 20.9%, 「매우 심하다」 9.7%, 「전혀없다」 3.1%로 나타남

- 연령대별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전 연령대에 걸쳐 70% 이상이 『조금있다』 이상을 응답하여 아직도 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정도별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고졸에서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72] 사회적 장애인 차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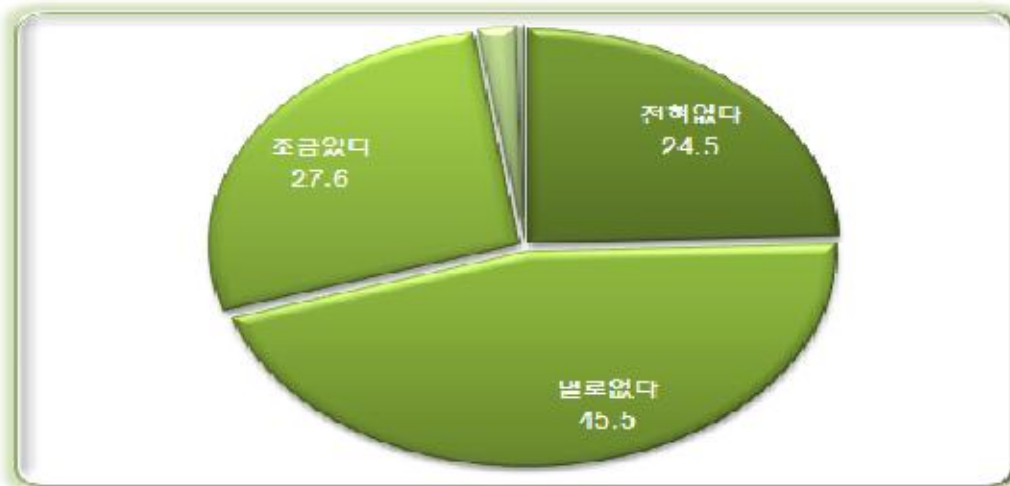
	합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조금 있다	심하다	매우 심하다
계	100.0	3.1	20.9	39.3	27.0	9.7
남	100.0	2.4	20.8	39.2	28.6	9.0
여	100.0	3.8	21.0	39.4	25.5	10.3
15-19세	100.0	6.1	21.2	33.3	30.3	9.1
20-29세	100.0	3.3	18.4	37.7	31.2	9.4
30-39세	100.0	1.5	19.8	35.1	30.2	13.4
40-49세	100.0	3.0	18.0	35.7	31.3	12.0
50-59세	100.0	1.5	25.9	43.9	22.3	6.4
60세 이상	100.0	4.5	21.8	44.0	22.1	7.6
초졸이하	100.0	4.7	20.5	41.8	23.8	9.2
중졸	100.0	2.0	24.6	46.4	19.8	7.2
고졸	100.0	2.4	22.1	36.2	28.9	10.4
대졸이상	100.0	3.2	18.3	38.1	30.2	10.2

다. 본인의 장애인 차별

본인의 장애인 차별정도는 「조금 있다」 이상이 30.0%로 나타나 사회의 장애인 차별 「별로 없다」 이상 76.0%보다 46.0%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본인의 장애인 차별정도는 남자 「별로 없다」 이상이 69.3%, 여자 「별로 없다」 이상이 70.5%로 나타남
- 교육정도별 본인의 장애인 차별정도는 초졸이하에서 「전혀 없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본인의 장애인 차별]



[표 73] 본인의 장애인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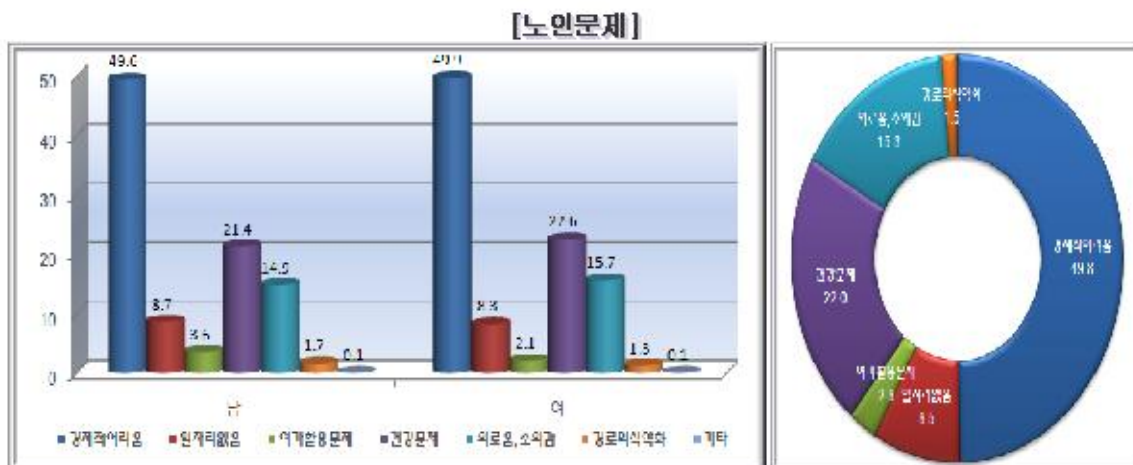
(단위 : %)

	한계	전혀없다	별로없다	조금있다	심하다	매우심함
계	100.0	24.5	45.5	27.6	20	0.4
남	100.0	22.4	46.9	27.7	27	0.3
여	100.0	26.4	44.1	27.6	14	0.5
15-19 세	100.0	22.0	40.9	31.8	4.5	0.8
20-29 세	100.0	19.3	44.3	34.4	20	0.0
30-39 세	100.0	18.3	47.8	30.7	27	0.5
40-49 세	100.0	26.2	45.0	26.5	1.8	0.5
50-59 세	100.0	28.1	45.4	25.0	0.9	0.6
60 세 이상	100.0	28.3	45.8	24.0	1.7	0.2
초졸이하	100.0	28.9	44.9	24.6	1.4	0.2
중졸	100.0	25.0	43.6	29.4	1.6	0.4
고졸	100.0	23.9	46.6	26.7	2.1	0.7
대졸이상	100.0	21.5	45.4	30.4	2.5	0.2

라. 노인문제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 49.8%, 『건강문제』 22.0%, 『외로움·소외감』 15.3% 순으로 나타남

- 노인문제에 대한 응답자 중, 60대 이상이 응답한 노인문제로는 『경제적 어려움』 51.8%, 『건강문제』 29.9%, 『외로움·소외감』 10.0%로 전 연령대에서 응답한 노인문제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4] 노인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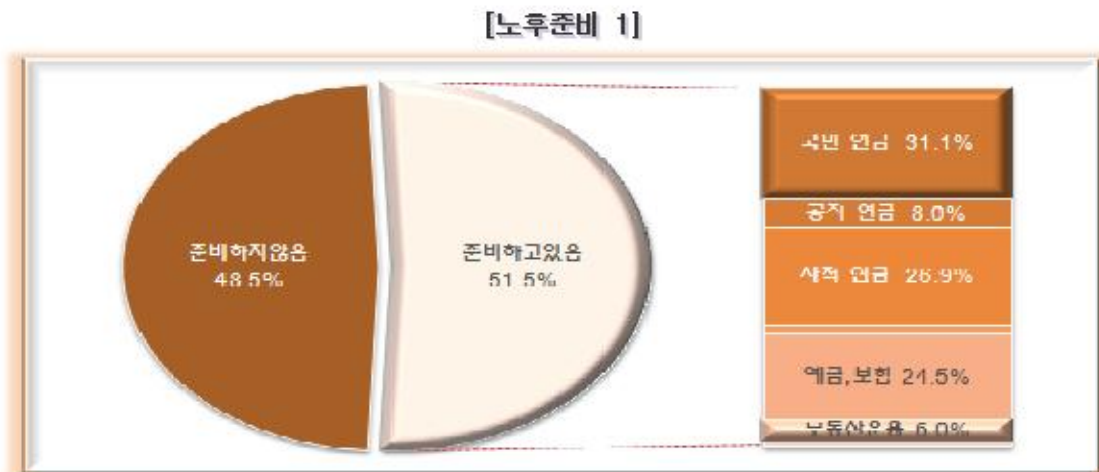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경제적 어려움	일자리 없음	여가활동 문제	건강문제	외로움·소외감	경로의식 약화	기타
계	1000	49.8	8.5	2.8	22.0	15.3	1.5	0.1
남	1000	49.6	8.7	3.6	21.4	14.9	1.7	0.1
여	1000	49.9	8.3	2.1	22.6	15.7	1.3	0.1
15-19세	1000	45.4	7.6	3.8	23.5	18.9	0.8	0.0
20-29세	1000	46.7	11.9	2.9	19.2	16.0	3.3	0.0
30-39세	1000	53.0	9.6	3.9	14.4	17.1	2.0	0.0
40-49세	1000	49.3	8.7	3.5	19.5	17.0	1.5	0.5
50-59세	1000	46.9	9.8	1.8	22.0	18.6	0.9	0.0
60세 이상	1000	51.8	5.5	1.9	29.9	10.0	0.9	0.0
초졸 이하	1000	49.2	5.7	0.8	32.4	11.5	0.2	0.2
중졸	1000	50.4	7.7	1.6	23.4	14.9	2.0	0.0
고졸	1000	49.4	9.6	2.9	18.5	17.7	1.8	0.1
대졸 이상	1000	50.5	9.7	4.8	17.3	15.8	1.9	0.0

마. 노후준비 1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준비하고 있음』 51.5%, 『준비하고 있지 않음』 48.5%로 나타났으며, 준비방법으로는 『국민연금』 31.1%, 『사적 연금』 26.9%, 『예금·보험』 24.5%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15-19세는 『예금·보험』 42.8%, 『사적 연금』 28.5%, 『국민 연금』 14.3%로 나타났으며, 30-40대는 『사적연금』, 『국민연금』, 『예금·보험』 순, 20대, 50대는 『국민연금』, 『사적연금』, 『예금·보험』 순, 60세 이상은 『예금·보험』, 『국민연금』, 『사적 연금』 순으로 나타남



[표 75] 노후준비 1

(단위 : %)

	합계	준비하지 않음	준비하고 있음	준비 방법						
				국민 연금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채권
계	100.0	48.5	51.5	31.1	8.0	26.9	2.6	24.5	6.0	0.9
남	100.0	45.2	54.8	37.4	8.5	24.2	2.5	20.1	6.2	1.1
여	100.0	51.6	48.4	24.4	7.5	29.7	2.7	29.2	5.7	0.8
15-19세	100.0	94.7	5.3	14.3	14.3	28.5	0.0	42.8	0.0	0.0
20-29세	100.0	56.2	43.9	41.1	8.4	25.2	0.0	24.3	0.9	0.0
30-39세	100.0	32.9	67.1	28.8	6.6	29.9	2.6	26.6	3.3	2.2
40-49세	100.0	35.3	64.7	32.4	10.4	34.4	1.9	19.3	0.4	1.2
50-59세	100.0	39.3	60.7	33.2	7.6	28.6	3.0	22.6	4.5	0.5
60세 이상	100.0	60.1	39.9	26.4	6.9	14.3	4.3	29.0	19.1	0.0
초졸 이하	100.0	69.1	30.9	26.5	3.3	17.2	1.3	30.5	21.2	0.0
중졸	100.0	51.6	48.4	30.0	4.2	27.5	3.3	25.0	9.2	0.8
고졸	100.0	44.4	55.6	35.1	4.5	28.9	3.0	24.1	4.2	0.2
대졸 이상	100.0	36.1	63.9	29.2	14.5	28.4	2.5	22.4	1.0	2.0

바. 노후준비 2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48.5%가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능력 없음』 43.5%, 『앞으로 할 예정』 38.0%, 『자녀의탁(예정)』 11.2%, 『준비계획 없음』 7.3%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본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남자는 『준비능력없음』 44.2%, 『앞으로 할 예정』 43.8%, 『준비계획 없음』 7.0%, 『자녀의탁(예정)』 5.0%인 반면, 여자는 『준비능력없음』 43.0%, 『앞으로 할 예정』 33.3%, 『자녀의탁(예정)』 16.2%, 『준비계획 없음』 7.5%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자녀의탁(예정)』이 11.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노후준비 하고 있지 않은 사유에서는 대부분 준비능력 없음과 앞으로 할 예정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60세 이상에서는 『준비능력 없음』 49.4%, 『자녀의탁(예정)』 31.0%로 자녀의탁(예정)이 높게 나타남

[노후준비 2]



[표 76] 노후준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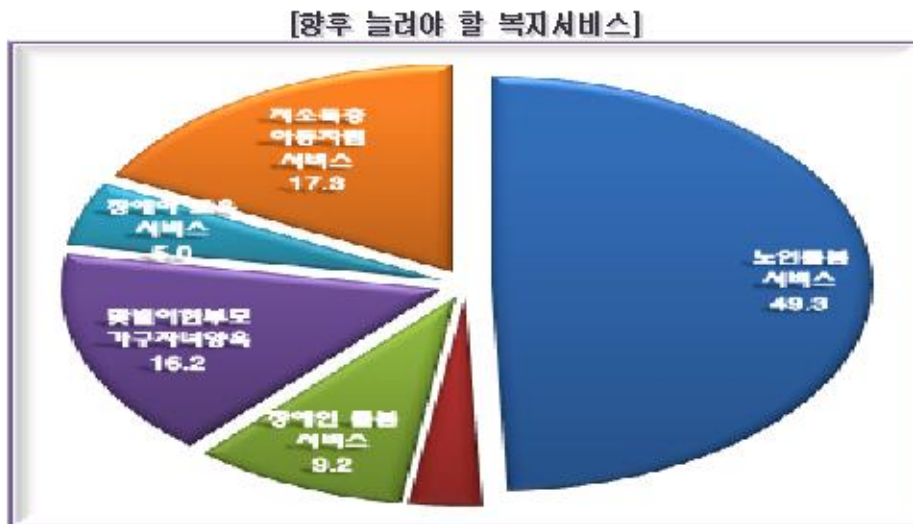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준비하고 있음	준비하지 않음	준비하고 (되어) 있지 않음			
				준비계획 없음	앞으로 할 예정	준비능력 없음	자녀의탁 (예정)
계	1000	51.5	48.5	7.3	38.0	43.5	11.2
남	1000	54.8	45.2	7.0	43.8	44.2	5.0
여	1000	48.4	51.6	7.5	33.3	43.0	16.2
15-19세	1000	53	47	3.2	32.0	64.8	0.0
20-29세	1000	43.8	56.1	4.4	74.5	21.2	0.0
30-39세	1000	67.1	32.9	6.8	65.4	27.8	0.0
40-49세	1000	64.8	35.2	8.5	55.3	36.2	0.0
50-59세	1000	60.7	39.3	7.0	34.1	55.0	3.9
60세 이상	1000	39.9	60.1	9.8	9.8	49.4	31.0

사.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향후 가장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는 『노인돌봄서비스』 49.3%, 『저소득층 아동
자립서비스』 17.3%, 『맞벌이 한부모 가구 자녀 양육』 16.2%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복지서비스는 남자 『노인돌봄서비스』 47.5%, 『저소득층 아동자립서비스』 18.6%, 『맞벌이 한부모가구 자녀양육』 15.4%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노인돌봄서비스』 50.9%, 『맞벌이 한부모가구 자녀양육』 16.9%, 『저소득층 아동자립서비스』 16.0%로 나타남



[표 7]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단위 : %)

	합계	노인 돌봄 서비스	산모 신생아 돌봄서비스	장애인 돌봄서비스	맞벌이 한부모 가구 자녀양육	장애아 교육 서비스	저소득층 아동자립 서비스
계	100.0	49.3	3.0	9.2	16.2	5.0	17.3
남	100.0	47.5	2.6	10.2	15.4	5.7	18.6
여	100.0	50.9	3.5	8.4	16.9	4.3	16.0
15-19세	100.0	34.1	0.8	9.8	18.2	9.1	28.0
20-29세	100.0	32.0	9.4	9.0	25.0	7.0	17.6
30-39세	100.0	35.1	5.4	8.2	26.0	6.7	18.6
40-49세	100.0	46.0	0.7	8.8	18.2	4.8	21.5
50-59세	100.0	53.6	3.0	11.3	10.4	4.0	17.7
60세 이상	100.0	69.6	0.9	9.1	6.9	2.8	10.7
초졸 이하	100.0	70.1	0.4	9.2	5.9	2.1	12.3
중졸	100.0	51.2	2.4	13.7	12.5	4.9	15.3
고졸	100.0	44.5	3.1	9.1	17.6	5.5	20.2
대졸 이상	100.0	37.7	5.4	7.7	23.9	6.7	18.6

6 고용과 취업부문

가. 현 실업 체감도

현 군산시의 실업 체감도에 대해서는 『다소심각』 37.7%, 『매우심각』 36.6%, 『보통』 22.4%로 나타나 74.3%가 『실업이 심각하다』라고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실업 체감도 중 『심각하다(다소심각, 매우심각 포함)』라고 느끼는 연령대로는 50대가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78] 현 실업 체감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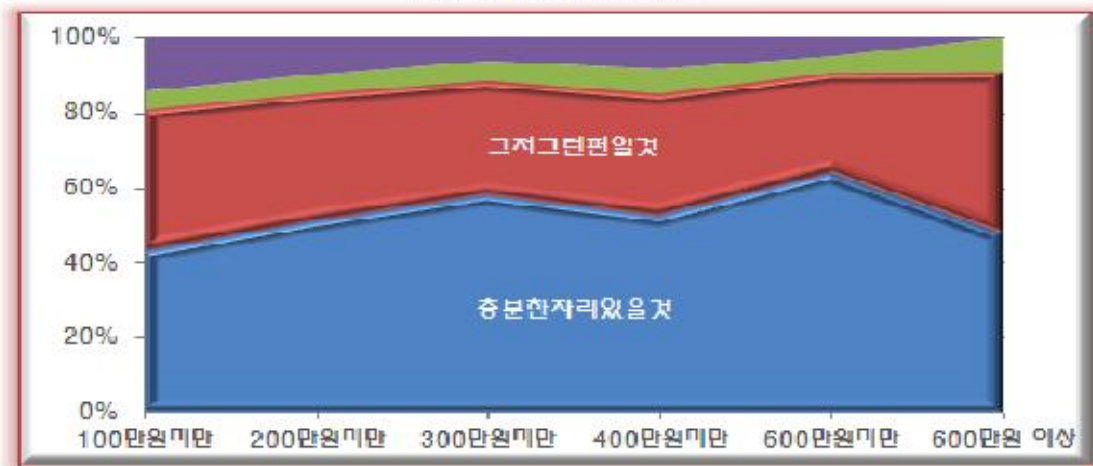
구분	연계	매우심각	다소심각	보통	별로심각하지않음	전혀심각하지않음
계	100.0	36.6	37.7	22.4	2.8	0.5
남	100.0	36.7	38.7	21.2	3.0	0.4
여	100.0	36.4	36.8	23.6	2.7	0.5
15-19 세	100.0	23.5	34.8	35.6	4.6	1.5
20-29 세	100.0	36.9	37.3	24.2	1.6	0.0
30-39 세	100.0	34.2	42.3	21.0	2.0	0.5
40-49 세	100.0	40.0	34.7	21.2	3.3	0.8
50-59 세	100.0	39.9	36.9	21.7	1.5	0.0
60세 이상	100.0	36.8	37.8	20.9	4.0	0.5

나. 향후 군산시 취업기회

향후 군산시의 취업기회를 묻는 질문에는 『충분한 일자리가 있을 것』 51.5%, 『그저 그런 편』 33.9%, 『충분하지 않을 것』 5.2%, 『잘모르겠음』 9.4%로 군산시의 향후 취업기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향후 군산시 취업기회는 40대가 『충분한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8.2%로 가장 높게 선택했으며, 『충분한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0대가 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향후 군산시 취업기회]



[표 7] 향후 군산시 취업기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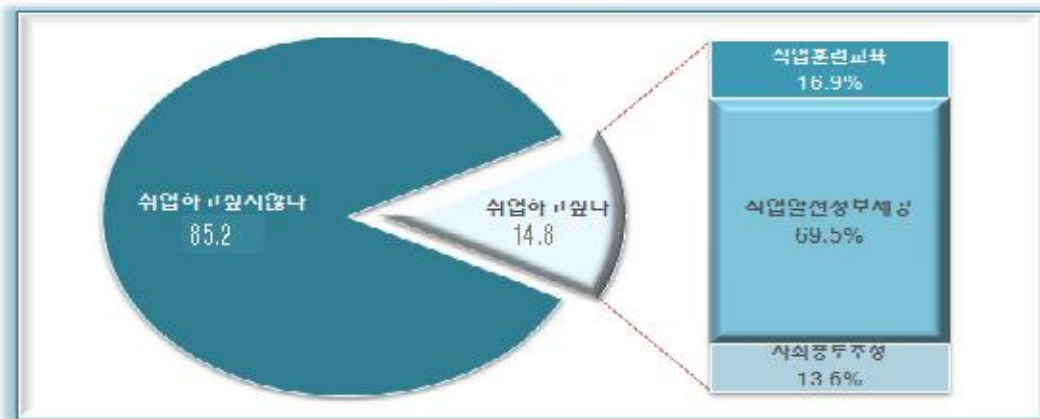
구분	합계	충분한자리 있을것	그저그런 편일것	충분한자리 없을것	잘모르겠음
계	1000	51.5	33.9	5.2	9.4
남	1000	54.1	34.2	5.0	6.7
여	1000	49.1	33.7	5.4	11.8
15-19세	1000	47.0	31.8	4.6	16.7
20-29세	1000	42.6	43.0	9.9	4.5
30-39세	1000	48.5	40.1	6.4	5.0
40-49세	1000	58.2	30.3	4.0	7.5
50-59세	1000	57.9	31.7	4.3	6.1
60세 이상	1000	50.1	30.0	4.0	15.9
100만원 미만	1000	42.9	38.1	4.8	14.2
100이상-200미만	1000	51.0	34.3	4.9	9.8
200이상-300미만	1000	57.9	30.7	5.2	6.2
300이상-400미만	1000	52.4	32.8	6.5	8.3
400이상-600미만	1000	63.8	26.9	4.3	5.0
600만원 이상	1000	47.7	43.2	9.1	0.0

다. 취업희망여부 (남자 60세, 여55세 이상 미취업자만 답변)

남자 60세, 여자55세 이상 미취업자에게만 질문한 취업희망여부에 대해 『취업하고 싶지 않다』 85.2%, 『취업하고 싶다』 14.8%로 나타났으며, 취업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직업알선정보 제공』 69.5%, 『직업훈련교육』 16.9%, 『사회풍토조성』 13.6%로 나타남

- 성별 취업희망여부는 남자가 『취업하고 싶다』 23.6%, 여자 11.4%로 남자가 여자보다 12.2%높게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정도별 취업희망 응답은 초졸이하 9.7%, 중졸 25.0%, 고졸 26.5%, 대졸이상 26.3%로 나타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희망여부]



[표 80] 취업희망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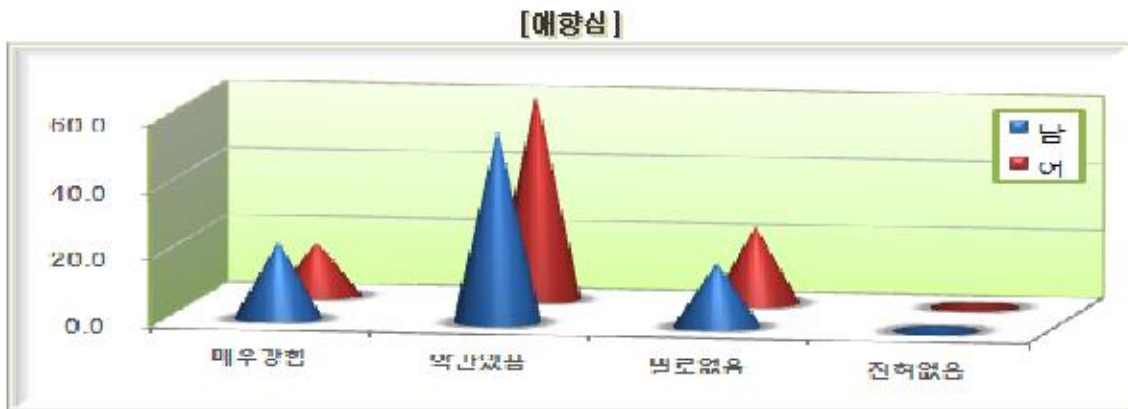
	합계	취업하고싶다	취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취업하고 싶지않다
			직업훈련교육	직업알선 정보제공	사회풍토조성	
계	100.0	14.8	16.9	69.5	13.6	85.2
남	100.0	23.6	15.4	69.2	15.4	76.4
여	100.0	11.4	18.2	69.7	12.1	88.6
15-19 세	0.0	0.0	0.0	0.0	0.0	0.0
20-29 세	100.0	0.0	0.0	0.0	0.0	0.0
30-39 세	100.0	0.0	0.0	0.0	0.0	0.0
40-49 세	100.0	0.0	0.0	0.0	0.0	0.0
50-59 세	100.0	26.2	16.7	75.0	8.3	73.8
60세 이상	100.0	13.5	17.0	68.1	14.9	86.5
초졸이하	100.0	9.7	19.2	76.9	3.9	90.3
중졸	100.0	25.0	20.0	73.3	6.7	75.0
고졸	100.0	26.5	15.4	53.8	30.8	73.5
대졸이상	100.0	26.3	0.0	60.0	40.0	73.7

7 시정부문

가. 애향심

군산시에 대한 애향심이나 친밀감을 묻는 질문에 『약간있음』 59.0%, 『별로 없음』 20.9%, 『매우 강함』 19.1%로 나타남

- 성별 군산시에 대한 애향심은 남자는 『약간 있음』 57.1%, 『매우 강함』 22.8%, 『별로 없음』 18.9%, 여자는 『약간 있음』 60.7%, 『별로 없음』 22.9%, 『매우 강함』 15.7%로 나타남



[표 8] 애향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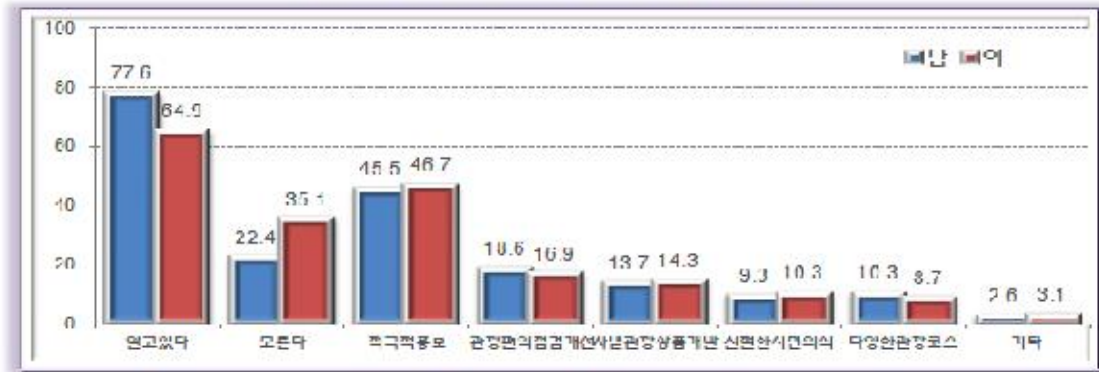
	한계	매우강함	약간있음	별로없음	전혀없음
계	100.0	19.1	59.0	20.9	1.0
남	100.0	22.8	57.1	18.9	1.2
여	100.0	15.7	60.7	22.9	0.7
15-19세	100.0	13.6	41.7	43.2	1.5
20-29세	100.0	15.2	59.0	25.0	0.8
30-39세	100.0	13.6	58.4	26.7	1.3
40-49세	100.0	24.0	59.2	16.0	0.8
50-59세	100.0	20.7	61.3	16.8	1.2
60세 이상	100.0	21.6	61.8	15.9	0.7
100만원 미만	100.0	18.3	56.7	23.0	2.0
100이상-200미만	100.0	17.8	59.4	22.1	0.7
200이상-300미만	100.0	18.7	60.9	20.0	0.4
300이상-400미만	100.0	22.4	58.6	19.0	0.0
400이상-600미만	100.0	20.6	60.3	18.4	0.7
600만원 이상	100.0	25.0	59.1	11.4	4.5

나. 군산방문의 해

2008년이 군산방문의 해임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71.1%, 모르는 응답자는 29.0%로 나타났으며, 성공적인 군산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추진할 사항으로는 『적극적 홍보』 46.1%, 『관광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 17.7%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군산방문의 해 인지도는 15-19세 및 60세 이상은 각각 42.4%, 45.9%가 모른다고 응답함
- 소득수준별 인지도는 대부분의 소득수준에서 『적극적 홍보』와 『관광편의 시설 점검 및 개선』 순으로 응답했으나, 600만원 이상 응답자는 『관광편의 시설 점검 및 개선』 (31.8%), 『적극적 홍보』 (22.7%)순으로 나타났음

[군산방문의 해 성공추진을 위한 역점사항]



[표 82] 군산방문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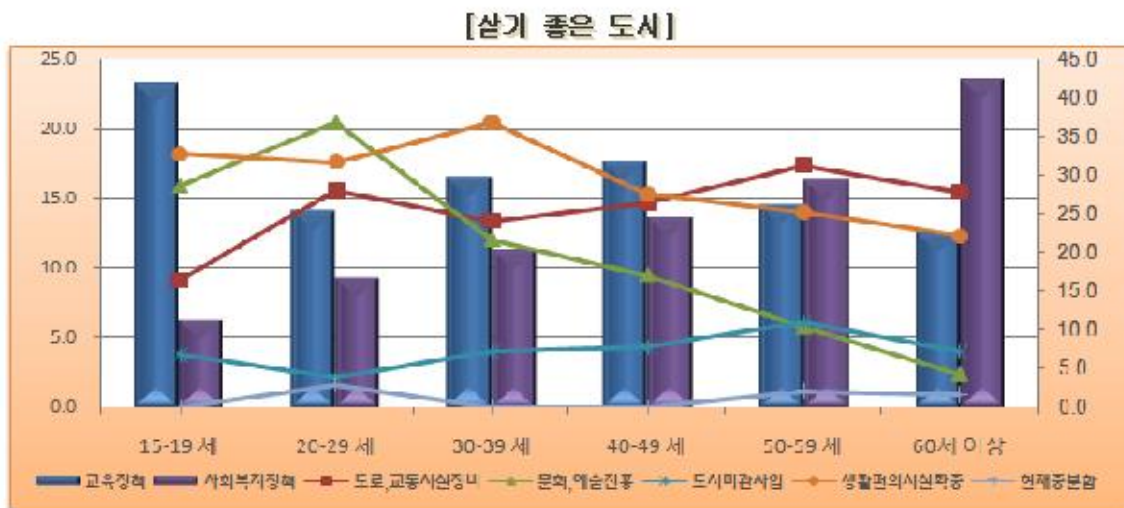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알고 있다	군산방문의 해 성공추진을 위한 역점사항						모른다
			적극적 홍보	관광편의 점검개선	차별관광 상품개발	전질한 시민의식	다양한 관광코스	기타	
계	100.0	71.1	46.1	17.7	14.0	9.8	9.5	2.8	29.0
남	100.0	77.6	45.5	18.6	13.7	9.3	10.3	2.6	22.4
여	100.0	64.9	46.7	16.9	14.3	10.3	8.7	3.1	35.1
15-19세	100.0	57.6	47.7	15.9	12.1	11.4	11.4	1.5	42.4
20-29세	100.0	77.5	48.0	17.6	14.3	6.1	11.1	2.9	22.5
30-39세	100.0	80.7	36.1	26.5	16.6	7.2	11.1	2.5	19.3
40-49세	100.0	81.7	42.7	16.2	17.3	8.8	12.0	3.0	18.3
50-59세	100.0	76.8	46.7	17.7	14.9	8.2	7.9	4.6	23.2
60세 이상	100.0	54.1	54.1	13.1	9.7	14.5	6.4	2.2	45.9
100만원 미만	100.0	56.4	56.9	13.3	10.0	11.7	5.2	2.9	43.6
100이상-200미만	100.0	72.8	44.3	18.5	14.2	8.3	11.2	3.5	27.2
200이상-300미만	100.0	80.0	41.9	19.8	17.5	10.1	8.9	1.8	20.0
300이상-400미만	100.0	74.8	39.0	17.9	14.2	10.3	14.5	4.1	25.2
400이상-600미만	100.0	78.7	48.2	19.9	13.5	6.4	9.9	2.1	21.3
600만원 이상	100.0	84.1	22.7	31.8	22.7	9.1	13.7	0.0	15.9

다. 살기 좋은 도시

군산시가 앞으로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27.8%, 「사회복지」 27.7%, 「생활편의시설 확충」 15.7%, 「도로·교통시설 정비」 14.8% 순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응답함

- 소득수준별 살기 좋은 도시로 되기 위한 추진정책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정책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88] 살기 좋은 도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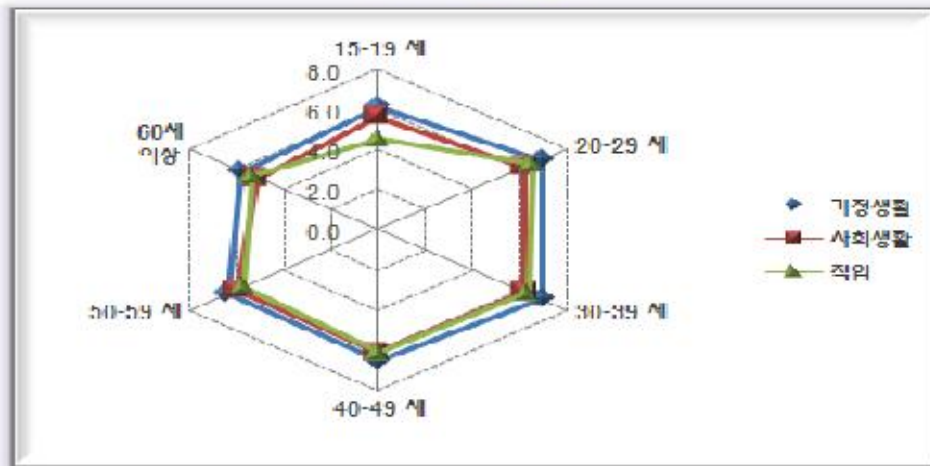
	합계	교육정책	도로·교통 시설정비	문화· 예술진흥	사회복지 정책	도시미관 사업	생활편의 시설확충	환경 증진사업	기타
계	100.0	27.8	14.8	9.2	27.7	4.1	15.7	0.6	0.1
남	100.0	28.5	16.7	8.3	23.8	4.1	17.9	0.7	0.0
여	100.0	27.2	13.1	9.9	31.3	4.2	13.6	0.6	0.1
15-19 세	100.0	41.7	9.1	15.9	11.4	3.8	18.2	0.0	0.0
20-29 세	100.0	25.4	15.6	20.5	16.8	2.1	17.6	1.6	0.4
30-39 세	100.0	29.7	13.4	12.1	20.3	4.0	20.5	0.0	0.0
40-49 세	100.0	31.7	14.7	9.5	24.5	4.3	15.3	0.0	0.0
50-59 세	100.0	26.2	17.4	5.8	29.3	6.1	14.0	1.2	0.0
60세 이상	100.0	22.6	15.5	2.4	42.3	4.0	12.3	0.9	0.0
100만원 미만	100.0	21.0	15.6	4.7	38.8	3.9	14.7	1.3	0.0
100이상-200미만	100.0	24.9	19.8	9.8	28.3	3.1	13.4	0.5	0.2
200이상-300미만	100.0	31.1	13.5	9.7	23.2	4.8	17.5	0.2	0.0
300이상-400미만	100.0	31.4	10.0	12.0	20.7	5.2	20.0	0.7	0.0
400이상-600미만	100.0	39.0	5.7	15.6	18.4	5.0	16.3	0.0	0.0
600만원 이상	100.0	54.5	20.4	11.4	4.6	2.3	6.8	0.0	0.0

라. 생활 만족 점수

성별 생활 만족 점수는 『가정생활』은 남자, 여자 각각 6.4점, 『사회생활』 남자 5.9점, 여자 5.7점, 『직업』 남자 6.0점, 여자 5.9점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생활 만족 점수는 『가정생활』에서는 30대가 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생활』은 20-30대가 6.2점, 『직업』은 30대가 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별 생활 만족 점수는 『가정생활』에서는 400-600만원미만에서 7.6점, 『사회생활』 600만원 이상 7.0점, 『직업』 600만원 이상 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생활 만족 점수]



[표 84] 생활 만족 점수(평균)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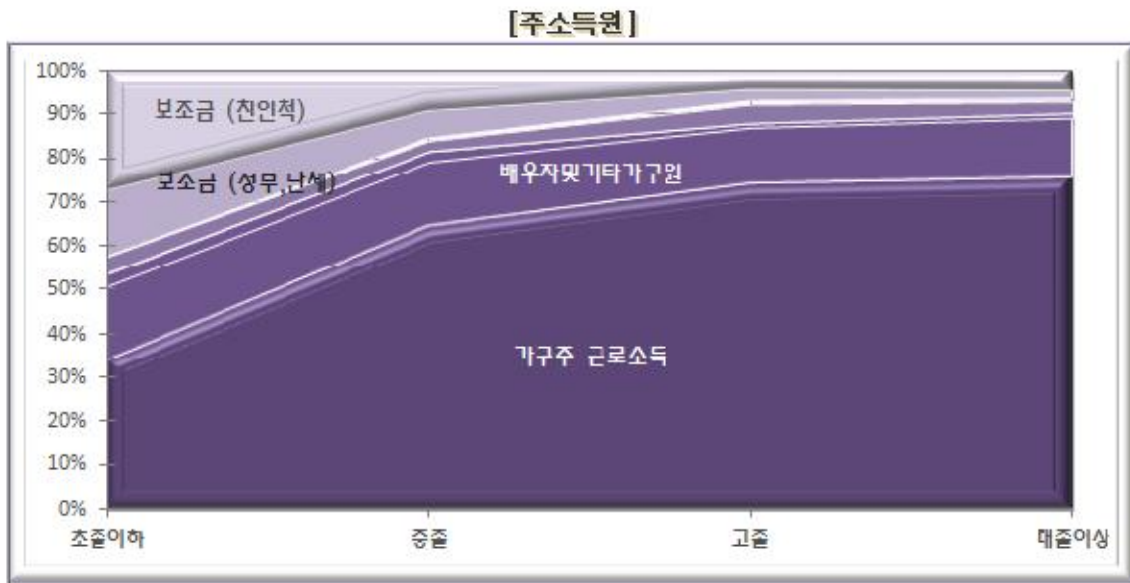
	가정생활 만족점수	사회생활 만족점수	직업생활 만족점수
남	6.4	5.9	6.0
여	6.4	5.7	5.9
15-19 세	6.1	5.6	4.5
20-29 세	6.9	6.2	6.5
30-39 세	6.9	6.2	6.3
40-49 세	6.5	6.1	6.1
50-59 세	6.4	6.0	5.7
60세 이상	5.8	5.1	5.3
100만원 미만	5.4	5.1	5.2
100이상-200미만	6.3	5.8	5.7
200이상-300미만	6.7	6.1	6.2
300이상-400미만	6.9	6.3	6.3
400이상-600미만	7.6	6.5	6.9
600만원 이상	7.4	7.0	7.3

8 소득과 지출부문

가. 주소득원

가구의 주 소득원을 묻는 질문에는 『가구주 근로소득』 62.5%,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14.6%, 『친인척 보조금』 11.4%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주 소득원은 남자는 『가구주 근로소득』 70.5%, 『배우자 및 기타가구원』 15.2%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는 『가구주 근로소득』 37.2%, 『친인척 보조금』 27.9%, 『정부·단체 보조금』 15.9% 순으로 나타남



[표 86] 주소득원

(단위 : %)

	합계	가구주 근로소득	배우자및 기타가구원	재산소득 (이자, 임대료)	연금, 퇴직금	보조금 (정부, 단체)	보조금 (친인척)	기타
계	1000	625	146	17	35	63	114	00
남	1000	705	152	16	32	32	63	00
여	1000	372	128	18	44	159	279	00
15-19세	00	00	00	00	00	00	00	00
20-29세	1000	666	139	00	00	28	167	00
30-39세	1000	860	102	00	00	06	32	00
40-49세	1000	803	143	00	05	22	27	00
50-59세	1000	710	176	11	23	40	40	00
60세 이상	1000	361	153	40	80	128	238	00

나.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대』 24.7%, 『200만원대』 21.0%, 『50-100만원대』 19.2%, 『50만원 미만』 15.7%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월 평균 소득은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 『100만원대』 26.1%, 『200만원대』 25.2%, 『50-100만원대』 16.4%로 나타났으며, 여자인 경우에는 『50만원 미만』 35.9%, 『50-100만원대』 27.9%, 『100만원대』 20.4%로 나타나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평균 소득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정도별 월 평균 소득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월 평균 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86] 월 평균 소득

(단위 : %)

	합계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600만원 미만	8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계	1000	15.7	19.2	24.7	21.0	11.6	5.9	1.1	0.4	0.4
남	1000	9.4	16.4	26.1	25.2	13.4	7.4	1.3	0.4	0.4
여	1000	35.9	27.9	20.4	7.5	6.2	1.3	0.4	0.4	0.0
15-19 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29 세	1000	11.1	22.2	30.6	11.1	16.7	8.3	0.0	0.0	0.0
30-39 세	1000	2.5	8.9	24.9	33.1	18.5	10.2	1.3	0.0	0.7
40-49 세	1000	2.7	12.1	29.6	25.1	17.5	9.0	2.2	0.9	0.9
50-59 세	1000	6.2	16.5	27.8	26.7	12.5	7.4	1.7	0.6	0.6
60 세 이상	1000	34.9	29.3	19.3	11.1	4.0	1.1	0.0	0.3	0.0
100만원 미만	1000	45.0	55.0	0.0	0.0	0.0	0.0	0.0	0.0	0.0
100이상-200미만	10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200이상-300미만	10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300이상-400미만	10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400이상-600미만	10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600만원 이상	1000	0.0	0.0	0.0	0.0	0.0	0.0	55.6	22.2	22.2

다. 월 평균 지출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200만원 미만』 30.8%, 『100만원 미만』 25.5%, 『50만원 미만』 22.7%, 『300만원 미만』 15.5%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월평균 지출은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 『200만원 미만』 35.7%, 『100만원 미만』 24.9%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인 경우에는 『50만원 미만』 49.1%, 『100만원 미만』 27.4%로 나타남



[표 87] 월 평균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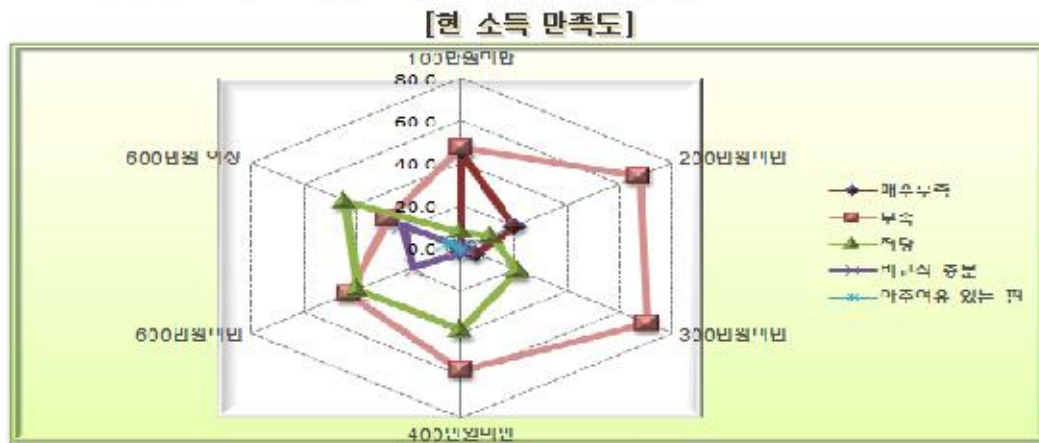
(단위 : %)

	합계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600만원 미만	8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계	1000	22.7	25.5	30.8	15.5	4.2	1.1	0.2	0.0	0.0
남	1000	14.4	24.9	35.7	18.5	5.0	1.2	0.3	0.0	0.0
여	1000	49.1	27.4	15.5	5.8	1.8	0.4	0.0	0.0	0.0
15-19 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29 세	1000	11.1	33.3	36.1	13.9	2.8	2.8	0.0	0.0	0.0
30-39 세	1000	7.0	19.8	40.8	24.2	7.0	0.6	0.6	0.0	0.0
40-49 세	1000	7.6	20.6	39.5	23.3	7.2	1.8	0.0	0.0	0.0
50-59 세	1000	13.0	21.6	40.3	16.5	5.7	2.3	0.6	0.0	0.0
60 세 이상	1000	45.2	32.4	15.6	6.2	0.6	0.0	0.0	0.0	0.0
100만원 미만	1000	55.9	42.6	0.9	0.6	0.0	0.0	0.0	0.0	0.0
100이상-200미만	1000	9.5	32.2	57.9	0.4	0.0	0.0	0.0	0.0	0.0
200이상-300미만	1000	3.5	8.6	55.1	32.8	0.0	0.0	0.0	0.0	0.0
300이상-400미만	1000	0.0	8.2	29.1	50.0	12.7	0.0	0.0	0.0	0.0
400이상-600미만	1000	1.8	0.0	17.9	35.7	37.5	7.1	0.0	0.0	0.0
600만원 이상	1000	0.0	0.0	11.1	16.7	27.8	33.3	11.1	0.0	0.0

라. 현 소득 만족도

현 소득 만족도는 『부족』 57.9%, 『매우부족』 21.9%, 『적당』 17.7%순으로 나타나 79.8%의 응답자가 소득에 대해 부족하다고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현 소득 만족도는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 『부족(매우부족 포함)』 77.8%, 여자인 경우에는 『부족(매우 부족 포함)』 85.8%로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보다 8.0% 부족하다고 나타남
- 소득수준별 만족도는 600만원 이상에서 『적당한 편 이상(충분 포함)』 응답이 72.2%로 나타나 소득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88] 현 소득 만족도

(단위 : %)

	한계	매우부족	부족	적당	비교적 충분	아주 여유 있는 편
계	100.0	21.9	57.9	17.7	2.4	0.1
남	100.0	16.7	61.1	18.8	3.2	0.2
여	100.0	38.5	47.3	14.2	0.0	0.0
15-19 세	0.0	0.0	0.0	0.0	0.0	0.0
20-29 세	100.0	16.7	50.0	33.3	0.0	0.0
30-39 세	100.0	11.5	65.0	19.7	3.2	0.6
40-49 세	100.0	21.5	56.5	17.1	4.9	0.0
50-59 세	100.0	17.1	63.6	18.7	0.6	0.0
60 세 이상	100.0	29.8	53.4	15.1	1.7	0.0
100 만 원 미 만	100.0	44.7	47.4	7.6	0.3	0.0
100이상-200미만	100.0	20.2	67.8	11.6	0.4	0.0
200이상-300미만	100.0	5.6	70.7	21.7	2.0	0.0
300이상-400미만	100.0	1.8	57.3	38.2	2.7	0.0
400이상-600미만	100.0	0.0	42.8	39.3	17.9	0.0
600만원 이상	100.0	0.0	27.8	44.4	22.2	5.6